

##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죄의식'의 경제\*

김 은 경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시각

박경리는 1955년 단편 「계산」으로 등단한 전후세대 작가로서 그의 대표작 『토지』(1969~1994) 이외에도 중·단편 40여 편, 장편 16여 편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에 대한 논의는 『토지』에 편중된 경향을 보인다.<sup>1)</sup> 『토지』 이외 작품에 대한 논의로, 『김약국의 딸들』(1962), 『시장과 전장』(1964), 『파시』(1964)

---

\* 이 논문은 2005년 한국현대문학학회 하계 학술대회(2005. 8.)에서 발표한 바 있다.

1) 권영민(2002: 105); 조남현 편(1996: 7) / \* 다음은 『토지』관련 연구서이다. 정현기 편, 『恨과 삶』, 솔, 1994; 『한·생명·대자대비』, 솔, 1995; 한국문학연구회 편, 『『토지』와 박경리 문학』, 솔, 1996; 최유찬, 『『토지』를 읽는다』, 솔, 1996; 이상진, 『토지 연구』, 월인, 1999; 최유찬 외, 『토지의 문화지형학』, 소명, 2004. 다수 석·박사 학위논문이 있다.

주 제 어: 죄의식, 순수형식으로서 법, 욕망의 추상성, 상징적 빛, 가족 [세대], 마조히즘, 고백, 자살, 제3의 대상으로 욕망 투여, 법의 처벌, 구원.

Consciousness of Guilt, Law as Pure Form, Abstract essence of Desire, Symbolic Debt, Family [Generations], Masochism, Confession, Suicide, Desire Investment in Third Object, Punishment of Law, Redemption.

등과 관련한 작품론, 1950~1960년대 발표한 단편들을 중심으로 한 논의 등이 상당수 발견되나,<sup>2)</sup> 박경리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토지』와 그 이전의 작품들을 연계하여 살핀 본격적 논의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박경리의 문학세계를 온전히 규명하기 위해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할 작업이되, 그의 문학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심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한 그의 전 작품세계가 방대하기 때문에 박경리론은 아직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 역시 본격적인 박경리론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단계라 하겠다. 본고는 주로 특정 시기, 특정 작품에 한정되는 논의의 폭을 넓혀서, 박경리의 전체 문학세계를 일관된 관점에서 거론하기 위한 시론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토지』에서 시작하여, 『토지』 이전 작품들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거침으로써,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토지』에 회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토지』를 중심에 둔 기존 박경리론은 한(恨), 생명, 운명 등의 용어로 그의 문학을 규정짓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이 박경리 문학의 주요 특질을 나타내는 것임을 간과할 수 없으며, 작가의 육성이 담긴 글들 역시 이를 뒷받침하나, 본고는 서사의 근간을 이루는 텍스트의 표층적 발화들 역시 박경리 문학의 본질에 보다 구체적이면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임을 밝히고자 한다.

『토지』 1,2부의 주요한 서사적 골격은 최참판가 家産의 빼앗김-되찾음의 과정이며, 이에 연루된 인물들의 갈등해소과정이 3,4,5부까지 이어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때 가산의 빼앗김-되찾음이라는 동일한 사건의 이면에는 이와 같은 사건의 根因으로 자리하는 윤씨부인-김환-별당아씨로 이어지는 법도의 위반, 보다 직접적으로는 최치수 살해에 간여하는 조준구·김평산·칠

2) 한국문학연구회 편(1996), 조남현 편(1996)에 수록된 논문과 구제진(1998: 297-319)의 논문 등이 있다. 장미영은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박경리 소설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숙명여대 박사논문, 2002) / \* 『토지』 완간에 부처 박경리에 관한 특집이 『작가세계』(1994. 가을)에 실린 바 있다. 수록 논문으로 류보선, 「비극성에서 한으로, 운명에서 역사로」; 송호근, 「삶에의 연민, 恨의美學」; 김만수, 「자신의 운명을 찾아 가기」; 정현기, 「『토지』해석을 위한 논리 세우기」 등이 있다.

성이·귀녀 등에서 비롯하는 '죄' 문제가 자리한다. 이를 직접적 논의의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sup>3)</sup> 『토지』에서 출발하여 그 이전 작품을 거쳐 『토지』로 선회하는 입장에서 박경리 문학에 접근할 때, '죄' 문제가 그의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sup> 여기에는 넓은 의미의 법(law) 양반가의 법도 등을 포함의 문제, 죄 혹은 죄의식, 처벌 혹은 보복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논점을 제공하는

- 
- 3) 최유찬은 도스토예프스키 문학과 박경리의 『토지』를 비교 연구한 논문에서 죄 문제가 박경리 문학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본다. 이덕화는 박경리 문학이 “인간의 죄의식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경향”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상진은 “도덕적 관점”을 연구의 시각으로 하여 『토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최유찬(2001: 23-57); 이덕화(2000: 89); 이상진(1999: 22) / \* 박경리의 도스토예프스키 수용은 그의 수필집 『Q씨에게』(1981)를 통해 확인된다. 죄와 관련된 본고의 입장은 도스토예프스키가 중요시한 기독교적 구원의 문제와 차별화된다. 박경리(1981: 13-18)
- 4) 이러한 입장은 『토지』에 박경리 문학을 수렴시키는 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한편, 박경리는 수필집 『Q씨에게』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는 바, 이는 본고 입장을 뒷받침한다. [본문 인용] 이해(利害) 상관을 가늠하면서 박수도 치고 응원도 하는 구경꾼들 말입니다. [...] 비유하건대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어 교수당하는 형장에서 죄를 씌운 당사자가 아니라 그 이유 하나로 지극히 흥가분한 마음이 되어 죄 없는 죄인이 단죄되는 광경을 그곳이 즐기며 구경하는 사람들, [...] 남의 육신을 살해하자는 살인자라는 각인과 함께 그 자신이 목숨으로 혹은 형기(刑期)로 죄 값을 상환합니다. 그러나 Q씨, 정신의 살해자는 무엇으로 상환하지요? 어떤 법의 조문에도 저축이 아니되는 검은 그림자 같은 범죄자를 누가 단죄하지요? [...] 하여간 상환의 필요가 없는 그 같은 범죄는 물론 두뇌 높은 족속이 애용하는 방법이어서 보다 가공하고 중요스러운 인간악의 극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 문학에 있어서 절대 고독, 운명이라 해도 좋겠지요, 그것을 응시하는 비정의 이성과 인간에 대한 애정, 그리고 생물 전반에 대한 애정과 악에 대한 뜨거운 증오의 정열이 없다면 인간을, 인간의 배경을, 인간과 연관되는 사건을 포괄하는 소설이 진정한 뜻에서 가능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강조: 필자」 박경리(1981: 192-163) / \* 이하 [강조: 필자] 생략함.

단편 「인간」(1966), 「밀고자」(1970), 중편 「타인들」(1965-1966), 「환상의 시기」(1966), 장편 『노을진 들녘』(1961), 『창』(1970), 『단층』(1974) 및 『토지』(1969-1994)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sup>5)</sup>

박경리는 그의 방대한 문학세계에서 작가 자신이 표명하거나 논자들이 주목한 핵심적 사상들 [개념들] — 예를 들면, 생명·운명 등 — 과 관련하여 양가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의 장이 필요하겠으며, 여기에서는 ‘죄’ 문제에 주목해 보자. 박경리는 ‘죄(의식)’과 관련하여서도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고정된 관점을 취하고 있지 않다. 그는 법(법도)의 위반에서 파생되는 죄 문제에 대해 선악의 이분법적 잣대를 단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즉, 박경리 문학에서 <법(법도)의 위반=죄=악>이라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으며, 여기에서 박경리가 그의 문학을 통해 모색하고 있는 죄와 속죄 문제를 법과의 관련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된다. 박경리 소설에서 죄는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죄(처벌)와 법의 자장 너머에 자리하는 죄로 구별되며, 전자보다 후자의 경우가 문제적인 것으로서 작품 내에 자리한다.<sup>6)</sup> 후자는 다시 관점에 따라 죄로 규정되거나 혹은 규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작품 내에서 이와 관련하여 인물들의 양가적 태도가 잘 드러난다 으로서, 죄

5) 본고의 기본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하 인용 면수만 밝힌다. 박경리, 「언덕 위의 합창」, 지식산업사, 1990; 『노을진 들녘』, 지식산업사, 1979; 「타인들」, 『他人들·哀歌』, 지식산업사, 1980; 「환상의 시기」, 지식산업사, 1980; 「인간」, 『박경리 단편선』, 서문당, 1997; 「密告者」, 《세대》, 1970. 6; 『창』, 지식산업사, 1980; 『단층』, 지식산업사, 1986; 『토지』, 솔, 1996. \* 이의 단편 「집」(1966), 「옛날이야기」(1967), 장편 『가을에 온 여인』(1962), 「나비와 영경귀」(원제: 죄인들의 속제, 1969) 등이 작품이 죄와 관련하여 논점을 제공한다.

6) 본고에서 법의 의미는 사법적 의미에서의 법, 교칙, 양방의 법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 19세기 후반 서양법의 영향을 받아 한국 법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 한국 전통법의 역사는 고조선의 八條法 등의 고대왕조의 법에서부터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고려의 법, 經國大典이라는 통합적인 법전을 완비한 조선왕조 법체계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고유의 전통법 체계를 유지해 왔다. Choi, Chongko(2005: 65-72)

를 인식하는(혹은 죄에 대해서 불감증인) 주체의 '죄의식'이 문제가 된다. 여기에서 법이 선형적인 선과 관계하지 않는다는 '순수형식'으로서 법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sup>7)</sup> 이와 같은 입장에서 '법'에 접근할 때, '법'은 절대적 선악의 기준일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드러나거나/드러나지 않는) '죄' 혹은 '죄의식'에 대한 실질적 처벌의 방편이 될 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되는 박경리의 작품들은 이러한 인식을 서사 전개를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내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법에 대한 박경리의 인식을 논의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박경리의 초기작품들에서 『토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죄(의식)'의 문제와 관련한 작가의식을 살필 것이다.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법(법도)에 의한 처벌이 죄를 규정할 수 없으며, 또한 '죄(의식)'에 대한 완전한 속죄의 방편이 될 수 없다고 할 때, '죄(의식)'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본고는 이와 같은 물음이 박경리 문학의 주요한 일면을 밝힐 수 있는 단초이며, 나아가서 이를 통해 박경리의 침체한 작가의식이 그의 작품에 자리하는 양상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경리 작품에서 실질적인 죄-처벌의 문제는 사법적 범주에서만뿐만 아니라, 인물의 심리적 차원과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본고는 죄에 대한 인물의 주관적 감정, 즉 '죄의식'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대한 논의는 '죄의식'의 '형성'과 '해소'에 대한 것으로 대별되는데, 죄의식의 형성에서 해소로 나아가는 '과정'에 '경제(economy)'의 원리를 원용코자 한다.<sup>8)</sup> 이러한 입장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7) '순수형식'으로서의 법은 칸트의 개념인데, 들뢰즈는 카프카의 작품을 이와 관련하여 분석하는 한편, 마조히즘의 원리에도 적용하고 있다. Deleuze(1996: 91-101); Deleuze&Guattari(1997: 83-84); Deleuze(2000a: 57-70); 서동욱(2000: 251-256)

8) 다음은 문학과 경제의 학제적 연구를 한 논저이다. Marc Shell(1978), *The Economy of Literatu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S. Wilson, *Cultural Materialism*, Blackwell, 1995; J. Thompson, *Models of Value*, Duke Univ. Press., 1996; 우찬제, 「한국서사문학에 나타난 '돈'의 이미지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86; 우찬제, 「한국 현대소설의 경제적 상상력 연구」, 『현대소설연

뒷받침된다. 우선, 죄의식을 양적으로 수치화할 경우, 죄의식이 심리적으로 '쌓인' 상태에서 '감소'하여 가는 과정은 일종의 '경제적 구조(economic structure)'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sup>9)</sup> 본고는 '순수형식'으로서의 법에 대한 인식을 단초로 박경리 작품에서 죄의식이 '형성-해소'되는 과정을 이러한 '경제적 구조'를 대입하여 살필 것이다. 다음으로, 죄의식의 형성과 해소는 죄의식과 속죄의 '교환' 관계로서 대치가 가능한데, 여기에서 '죄-속죄'의 '순환적인 교환(circular exchange)' 역시 '경제'의 의미를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sup>10)</sup>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박경리의 작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간 혹은 죄의식의 주체와 그 원인(피해자가 부재할 경우)간 죄-속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살필 것이다.

구] 14, 2001; 김승환, 「근대성의 표상으로서의 돈」, 『현대소설연구』 14, 2001; 조진기, 「리얼리즘소설과 돈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14, 2001; 송민호, 「이상문학에 나타난 화폐와 글쓰기의 상관성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2.

9) 이와 관련하여 프로이트와 들뢰즈의 마조히즘에 관한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Freud, 1997: 170-182)와 (Deleuze, 1999: 99-100). 본고는 사드의 작품에 드러난 쾌락의 경계를 논의한 Martyn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Martyn은 사드가 상대의 고통을 통해 자아의 쾌락을 얻은 방식에서 나아가, 여기에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처벌을 통하여 쾌락을 배가시키는 원리를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타자의 고통이 자아의 쾌락이 되는 폐쇄적 구조( $X = Y$ )에 범죄 및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해짐으로써 쾌락의 경계에 인플레이션이 작용한다( $X = Y + 1$ ). Martyn의 (1999: 258-276)와 (2003: 84-88) 참조.

10) 데리다는 보들레르의 산문 『위조화폐』를 '선물(gift)'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하는데, 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경제(oikonomia)'는 교환(exchange), 순환(circulation), 답례(return)의 의미를 갖는다. 그는 불어의 don과 pardon의 어원적 관계를 고려하여 '용서(forgiveness)'가 유일한 선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Derrida(1992: 6-7); 김상환(2004: 101-118) 참조.

## 2. '순수형식'으로서의 법에 대한 인식과 '죄의식'의 문제

박경리가 1960~1970년대에 발표한 단편·중편·장편 및 『토지』에서 인물들의 '법'에 대한 인식을 살필 수 있다. 그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법에 대한 인식은 공통적으로 법이 是非 혹은 선악 판별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귀결된다. 이러한 법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법의 집행 너머에 자리하는 죄(의식)과 그것에 대한(의) 처벌/해소의 문제가 중하게 대두된다. 죄의식이 작품 내에서 자리하는 양상은 ① 법의 처벌과 무관하게 가해자의 위치에 놓이는 인물이 강한 죄의식을 갖는 경우, ②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위반과 무관하게 가해자의 죄의식이 부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①②의 두 양상을 살피고, 이어서 ③ 죄의식의 기원/유형 및 청산되지 않은 죄가 '상징적 빛'<sup>11)</sup>으로 형성되는 양상을 논의하겠다.

우선, 법의 처벌과 죄의식이 분리되는 경우인 ①에 대해 살펴보자. 중편 「환상의 시기」<sup>12)</sup>는 『토지』 5부의 진주에서 여학교에 다니는 '이상의'가 등장하는 章들을 법과 처벌, 그리고 죄의식 문제에 주목하여 살필 수 있는 시각을 열어준다. 이 작품은 여학교 재학 중인 주인공 '이민이'가 일본인 여학생 '오가와 나오코'의 깨끗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당시 교칙으로 금지되어 있던 S

11) 여기에서 '상징적 빛'이란 '존재의 근본 층위에서의 죄'를 의미한다. 1950년대 라캉의 실존주의 시기 죄와 상징적 빛에 대한 이론에 기대어 『햄릿』을 분석한 주판치치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이에 따르면, 햄릿은 그가 부왕의 죄를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실존의 층위에서 유죄이며, 따라서 그의 주된 책무는 삼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정을 청산하는(아버지의 빛을 갚는) 것이다. Zupančič(2004: 259-286)

12) 「환상의 시기」, 『한국문학』(1966. 3~12) 연재함. 본고는 『환상의 시기(중편집)』, 지식산업사, 1980을 텍스트로 한다. 『토지』 5부-3편-4장 〈적과 흑〉 및 5부-5편-1장 〈대결〉장과 「환상의 시기」의 상호텍스트적 관련 사식 — 박경리의 「환상의 시기」를 대상으로 —, 『한국문학이론과비평』 16집.

맺기를 시도하다 발각되어 훈육주임 선생이자 담임인 ‘마지마’ 선생의 처벌을 기다리며 전전긍긍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작품이다. 본고는 이 작품에서 교칙 [법]의 위반에 뒤따르는 처벌의 두려움 내지 고통이 죄의식과 분리되어 있음에 주목한다. 다음 인용은 이를 적절히 드러내 보인다.

(1) 「아파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고할 테니 학교 쉬는 게 어때?」 / 친근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민이는 여전히 그 창피스럽고 가슴 떨리는 일을 고백하라 고백하라! 하며 실장이 자기 앞으로 다가서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낀다. [...] (짐을 싸가지고 그만 달아날까부다! 집으로!) (도대체 어찌 되었다 말이나? 편지가, 그 편지가!) (29-30) / 민이는 예쁜 소녀의 얼굴이 있는 바다 빛깔의 작은 노트북 생각을 했다. 그는 온갖 꿈과 마음이 들어 있는 그 바다 빛깔의 노트북이 정말 모멸을 받아 옳은 것인가, 그 신성한 것에 때문은 손이 닿아 옳은 것인가 생각했다. (31)

(2) 민이는 옥순자의 느릿느릿한 말투에서도 착각과 혼란에 빠졌다. 비행기 프로펠러보다 빠르게 돌아가던 알팍한 입술의 그 옥순자는 과연 지금 여기 있는 옥순자였을까 하고, 머리 구석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모양과 빛깔과 움직이는 그 그림들과 지금 마주한 얼굴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어볼 수도 없고 떼어볼 수도 없었다. 다만 추억이나, 지금은 다 함께 생소한 것이며 외면해 버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민이 마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죄의식이 심어졌던 것이다. 위기를 몰고 오듯 자꾸 물이 불어나던 그 방천 가에서 송진껌을 버리고 기름종이에 싸 껌을 남 몰래 꺼내어 입 속으로 밀어넣었을 때의 그 괴로움 같은 죄의식이다. 하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싫다는 본능은 죄의식 속에 더욱 선명히 자리잡았고 그럴수록 죄의식은 깊어만지고, 어쩌면 죄의식과 본능은 끝없는 경주였으며 공존의 것이나 아니었는지. (36)

(1)은 여학교에 다니는 현재의 시간대에서 교칙을 어긴 사실에 뒤따르는 감정이며, (2)는 회상을 통해 현재와 병치되는 과거의 사건과 관련하여 옥순자에

대해 갖는 감정이다. (1)에서 오가와와 사귀기 위해 교칙을 어긴 사실에 부수 되는 감정이 그로부터 거절을 당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 오가와가 알게 될 것을 근심함으로써 배가되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에 머무는 것과 달리, (2)의 옥순자에 대한 감정은 그를 배반한 것에서 비롯하는 “괴로움 같은 죄의식”이다. 옥순자의 추한 용모를 염오하여 그를 배반한 데 뒤따르는 죄의식은 여학생이 된 현재도 민이의 의식 속에 잔존하면서 ‘한 떨기 오랑캐꽃’ 같은 오가와를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과 충돌하고 있다. 이 작품은 교칙으로 대변되는 법의 위반이 시비의 판별 혹은 죄의식과 분리되어 있음을 과거와 현재의 시간대를 교차 서술하는 형식을 통해 보여준다. 이 작품과 상호텍스트적 관련이 있는 『토지』 5부의 〈적과 흙〉 및 〈대결〉章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이상의’를 비롯한 조선인 학생들과 일본인 교사간의 대결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상의는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일본인 사감과 맞선 후, 교칙에 따른 퇴학을 피하기 위해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은 채 일본인 사감에게 용서를 비는 과정에서 굴욕감을 느낀다. 이러한 교칙위반과 죄의식의 분리는 학생들의 법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한편, 여학생들은 당시 학병과 정신대에 끌려 나가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데, 법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결론은 법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법이 학병과 정신대로 끌려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 「환상의 시기」와 『토지』의 상호텍스트적 관련을 통해 살핀 죄의식 문제는 「언덕 위의 합창」(1959) 등 박경리의 초기작에서부터 비롯한 것으로 보이며, 『토지』는 선행 작품들과의 연장선상에서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죄의식(本能的 抑壓)”<sup>13)</sup>을 주요 문제의

13) [본문 인용] 약 십 년 전에 나는 친구로부터 근친간의 연애비극을 들은 일이 있다. 그 이야기는 근래에 와서 늘 나의 창작의욕을 자극해 왔다. [...] 초정월부터 세부에 이르는 구성 노트를 작성하고 백오십 매 가량 지금 나가고 있다. [...] 문제의 중점이 그런 불륜의 애정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죄의식(本能的 抑壓)을 파고들어가는 데 있다. [...] 미루어온 것 중에는 또 다른 두 개가 있다. 그런 뜻에서 나는 지금 습작을 해온

식으로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 살핀 법의 처벌과 분리된 죄의식 문제는 장편 『창』(1970), 『단층』(1974)을 거쳐, 『토지』(1969-1994)에 이르기까지 박경리 문학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다.<sup>14)</sup>

다음으로 법의 위반에 대해 죄의식이 부재하는 ②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박경리는 법 집행이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인간」(1966), 「밀고자」(1970), 『단층』, 『토지』 등의 작품에서 드러내 보인다. 이들 작품을 통해 그는 분명한 피해자(혹은 범행)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위반과 관련한 죄의식이 부재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박경리 문학에서 ‘죄의식의 부재함’이 죄의식 못지않게 주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이를 통해 법이 선을 담보할 수 없다는 ‘순수형식’으로서의 법 인식이 박경리의 소설에 자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악에 대한 비정한 응시”(박경리, 1981: 163)를 통해 인간을 탐색하고자 하는 작가의식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단편 「인간」은 법의 입법 자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가공의 무대’를 설정,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직 수도승이었던 ‘사포’라는信義 없는 인물이 정계에 진출하여 부정부패를 일삼다 처형당하는 과정을 그린 단편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바는 혁명 이후 ‘영예스런 입법의회 의원’

---

셈이다. 이곳도 습작이 될 것이다. 마지막의 작품 하나를 위하여 나는 끊임없이 습작을 할 것이다. 그 마지막 작품이 완성되는 날 나는 문학과 인연을 끊는 것이다. (박경리, 1981: 404) / \* 기존논의는 앞의 인용과 관련하여 『토지』가 ‘마지막의 작품 하나’일 것이라는 추측은 하고 있으나, 인용의 전반부에 제시된 ‘죄의식’ 문제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 14) 『토지』에서 이와 관련하여 김개주의 겹간으로 사생아를 낳은 윤씨부인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김개주, 우관선사, 문의원 등은 윤씨부인의 비밀에 양반가 법도라는 잣대로 접근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에게 윤씨부인의 과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는 봉건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가 충돌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후자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들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윤씨부인이 갖는 죄책감 역시 양반가의 법도 위반을 직접적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가 갖는 죄의식의 심층적 원인은 그가 갖 낳은 아이「사생아」를 버린 점, 그리고 김개주를 사랑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으로 활약하는 사포가 철저하게 비도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부정 축재로 법망에 걸려든 '사포'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 처형된다. 「인간」은 위법에 대한 죄의식을 갖지 않는 '사포'라는 비도덕적 인간을 '입법의원'으로 등장시킴으로써, 법의 불완전성을 잘 드러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밀고자」는 '법의 허술함'을 인식한 인물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위법을 자행하는 상황을 부각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외팔이 철물점 가게 주인 '나(이영준)'의 이야기와 '나'의 집에 세 들어 사는 '덕호' 가족의 이야기를 병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간여하는 '마포 아저씨'를 대상으로 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 후자의 이야기는 過失致死한 '덕호'의 죽음이 마포 아저씨에 의해 돈으로 무마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는 '박목수'의 대사는 선이 법의 상위 원리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적실하게 드러낸다.

그는 내 눈치를 힐끔힐끔 살피며 말했다. 「법이란 뭐요?」 물었다. 술 탓 이겠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골치가 아팠다. 「도둑놈 잡는 게 법이고 살인자 잡는 게 법이고, 우리네들 재산을 지켜 주는 게 법이고, 그런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법이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개인 재산을 뺏고 하는 것도 법 아니겠소? 그야 옛날 얘기죠만 그 춘향전의 사포 같은 양반이 쓰던 법 말이요.」 하고 박 목수는 씩 웃었다. 그리고 술을 마신다. 「근데 나는 도모지 그놈의 법이란 걸 지킬 수가 없단 말씀이야.」 (368-369).

마포아저씨는 '돈이 법' (375)이라는 생각으로 덕호의 유가족을 설득하여 '덕호'를 과실치사한 '윤씨'로부터 합의금으로 많은 돈을 받아 내어 세상물정 모르는 덕호의 모친과 처에게 소액의 금액을 내놓고 나머지는 자신이 착복한다. 그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을 챙기는 인물로서, "법이런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 법을 통해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잘못을 가려낼 수 없다"(376)는 생각을 가지고 처신한다. 법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나'와 관련된 전자 [과거]의 이야기와도 관련을 맺는다. 한국전쟁 때 '나'와 같은 기차를 탄 그는 '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욕구 때문에 '나'를 빨갱이로 밀고

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 한쪽 팔을 잃게 된 나는 화가로서의 꿈을 접고 사랑하는 여인도 잃게 된다. 그는 ‘법의 허술함’, 즉 법이 선의 주위를 맴돌 뿐 그 선의 실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도유망한 한 젊은이의 삶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았던 것이다.

『단층』은 ‘한윤희’가 교묘한 방식으로 모친을 자살에 이르게 하였으면서도, 본인의 행위를 죄로서 인식하지 않는 가해자에게서 죄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는 서사가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한편, 술에 취한 채 살인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살인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피해 다니는 ‘정근태’ 관련 서사가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장편이다. 이 작품은 이러한 상반된 상황을 설정하여 “죄하고 양심하고 법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인식<sup>15)</sup>을 드러내 보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죄의식에 대한 문제의식은 『토지』로 이어진다. 『토지』에서 최치수 살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은 ‘김평산’과 ‘귀녀’이다. 여기에 ‘칠성’이 간접적으로 연루되며, ‘조준구’는 최치수의 살해를 교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토지』는 마지막 순간에 죄를 인정하고 처형된 귀녀와 이 사건에 간접적으로 간여하였을 뿐인데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칠성의 경우에 비해,<sup>16)</sup> 최치수의 직접적인 살해자이면서도 마지막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등의 죄의식을 갖지 않은 채 처형당한 김평산, 최치수 살해를 교

15) [본문 인용] 「사람을 죽이고도 전쟁 탓이다 해버리면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죄졌다는 생각도 안하는데, 그, 그렇다면 법이 잡으러 오지 않기 때문에 그,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 지금은 또…… 난 아무것도 모르는 데 겁이 나고 죄를 진 것 같고 또오…… 음 이렇게 피신을 하는 거는 법이 날 잡으러 올 것이기 때문에……」 / 「그, 그렇다면 뭐가 잘못돼 있는 거야. 죄하고 양심하고 법이 함께 가, 가야 하는 거데……」 「하나님 법하고 사람들이 만든 법하고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174)

16) ‘강포수’의 사랑에 감화를 받은 ‘귀녀’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최치수 살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서 이미 처형을 당한 칠성을 살인자라는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후 서사에서 강포수와 귀녀 사이에서 태어난 강두메는 중국의 군관학교 출신의 독립운동가로서 긍정적으로 그려지며, 생모로 인한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사하였지만 범망을 피한 조준구의 경우를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sup>17)</sup> 이를 통해 『토지』 역시 1,2부의 주요한 서사라인을 통해 법의 처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토지』의 장대한 서사에서 동학장수 김개주의 겹간으로 사생아를 낳은 '윤씨부인의 비밀'과 '최치수 살해'에서 비롯하는 '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속적으로 자리함을 이후 논의를 통해 살필 것이다.

이상 박경리 작품에 드러나는 '순수형식'으로서의 법에 대한 인식, 법과 죄의식의 분리 양상, 법의 위반에 대한 죄의식의 부재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법의 위반과 죄의식 형성이 필연적 관계에 놓이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데 박경리의 문제의식이 자리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아가서 박경리 문학에 드러나는 죄의식의 기원을 궁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장의 마지막 과제(③)에 해당하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 더불어서 박경리 문학에 드러나는 죄의식의 유형과, 법집행/처벌을 통해 청산되지 않은 '잔여의 죄'가 '상징적 빛(존재의 근본층위에서의 죄)'으로 형성되는 양상을 살피겠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양심은 억압된 본능의 후계자이며 인간의 죄책감(죄의식)은 초자아 혹은 도덕법칙에 의해 작동되는 '문명의 소산'이다.<sup>18)</sup> 이는 '죄의식'의 발생을 해명하는 보편적·이론적 접근으로서 본고 논의대상이 되는

17) 최치수를 살해죄로 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갖지 않은 김평산과 법의 처벌 너머에서 죄의식 없이 악행을 계속하는 조준구와 관련된 작가의 문제의식은 『토지』의 종반까지 지속된다. 『토지』는 5부-5편-7장에서 종결되는데, 김평산과 조준구의 후손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죄의식을 극복하고 화해하게 되는 것은 <5부-5편-4장. 운수불길>장에 이르러서이다.

18) 프로이트는 죄책감의 두 가지 근원으로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과 '초자아'에 대한 두려움을 든다. 그는 권위자/초자아에 대한 두려움, 즉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인간이 본능을 단념한다는 관계를 역전시켜, 본능 단념이 양심의 역동적 원천이 되고, 본능을 단념할 때마다 양심은 더욱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진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Deleuze(1996: 95); Freud(2004: 319-320, 329)

작품들에도 적용된다. 즉, 「환상의 시기」에서 상의가 친구를 배반함으로써 느끼는 죄의식, 『단층』에서 맹시현이 애인과 뺏어지기 위해 처자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방치한 것에서 느끼는 죄의식, 『토지』에서 사생아 김환을 낳은 윤씨부인이 최치수와 김환 사이에서 느끼는 죄의식 등은 모두 도덕법칙 내지 초자아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데 본고는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 죄의식과 관련한 작가 의식을 추적하고자 한다. 박경리는 법의 집행과 분리된 죄의식의 발생을 초자아「도덕법칙」의 간여로 보는 것에서 나아가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는 ‘문명화’ 되기 이전의 본능적 욕망을 인간의 보편적 속성으로서 환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와 관련된 작품으로 고종사촌간 근친상간을 모티프로 한 「노을진 들녘」(1961)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원시적 자연을 배경으로 교육받지 않은 소녀를 등장시킴으로써, 도시에서 간 청년 ‘영재’가 인간 본연의 욕망에 굴복하게 된 상황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있다. 물론, 이 작품은 근친상간을 범한 이후 영재가 갖는 죄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작품 초반부 근친상간을 범하기까지의 디테일은 그의 의도가 인간 본연의 욕망을 드러내는 데 놓여있음을 간파하게 한다. 원시의 자연에서 원시의 소녀를 대상으로 한 근친상간이기에 인간 본연의 욕망을 ‘보편화’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인간 ‘욕망의 추상적 본질’<sup>19)</sup>을 적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박경리의 이러한 입장은 그의 작품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근친(상간)적 애정관계’ 모티프, 인륜을 저버리는 무차별적 탐욕 예를 들면, 탐욕에 가려진 비정한 모정 등을 통해서 드러난다.<sup>20)</sup> 이처럼

19) 들뢰즈는 프로이트의 가장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로, 인간 욕망의 추상성을 발견한 것을 들고 있다. 즉, 프로이트는 인간 욕망의 본성 혹은 본질은 더 이상 대상들, 목적들 혹은 심지어는 원천들과 관련을 맺고 있지 않으며, 그것은 추상적(abstract)이고, 주관적(subjective)인 본질로서 리비도(libido) 혹은 섹슈얼리티(sexuality)와 같은 것임을 발견하였다. Deleuze&Guattari(2000b: 270, 399-400); Holland(1999: 17)

20) 근친상간적 모티프는 「애가」(1958), 「재귀열」(1959), 「김약국의 딸들」(1962), 「파시」(1964), 「토지」(1969~1994) 등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후자

인간욕망의 근원적 속성을 들추어내는 것에서 박경리의 '죄(의식)'에 대한 통찰이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 “법이란 억압된 욕망과 같은 것”이며, 결과적으로 “법의 대상과 욕망의 대상은 동일한 것”이라는 라캉의 통찰에 기대어 볼 때, 그리고 법의 불완전성을 고려할 때, ‘욕망과 죄’의 밀접한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sup>21)</sup> 박경리가 그의 인물 형상을 통해 구현해 낸 인간 욕망의 추상적 본질은 초자아/도덕원칙에 선행하는 죄의식의 심층적 기원으로 자리한다고 볼 수 있다.

앞의 논의를 토대로 박경리 문학에서 죄의식이 드러나는 양상을 다음의 두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①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환상의 시기」, 「창」, 「토지」 등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죄의식은 타자-인물과의 관계 자체가 욕망의 일차적 대상일 때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sup>22)</sup> 이와 달리 분명히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죄의식을 갖지 않는 ②의 경우는 욕망의 일차적 대상이 물질(혹은 무형의 권력)이다. 이때, 타자-인물과의 관계는 물질적 욕망을 우위에 두고 추구한 결과 파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23)</sup> 전자의

---

와 관련하여 「단층」의 근태 생모 및 「토지」의 임이네가 보여주는 모성을 비롯하여 여타 인간적 가치들을 사랑하는 수전노적 속성을 예로 들 수 있다.

21) Deleuze(1996: 95-96)와 Zupančič(2004: 188, 285) 참조.

22) 「환상의 시기」에서 ‘이민이’가 ‘옥순자’의 미운 모습을 보고 억제할 수 없는 혐오의 감정을 가지면서 그를 배반한 것 이는 「토지」에서 이상의가 그의 고모 ‘임이’에 대해 느끼는 죄의식으로 변주된다. 여기서 비롯하는 죄의식, 「창」에서 ‘맹시현’이 애인과 맺어지기 위해 처자의 죽음을 욕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죄의식에 시달린다는 점, 「토지」의 ‘윤씨부인’의 죄의식의 심층적 원인이 자신을 겁탈한 사내를 사랑한 사실에 있다는 점, 또한 ‘윤씨부인’의 사생아인 ‘구천’이 형의 아내인 ‘별당아씨’를 사랑하여 ‘근친적 불륜’을 행한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자.

23) 「밀고자」에서 ‘마포 아저씨’는 열차의 편안한 좌석 혹은 돈을, 「인간」의 ‘사포’는 권력과 돈을, 「단층」의 ‘노파’ 역시 돈을 열망한다. 마찬가지로 「토지」의 ‘김평산’은 최참판가의 재산을 탐내어 최치수를 살해한다. 또한 ‘임이네’는 돈을 위하여 모든 인간적 가치들을 버린다.

타자-인물과의 관계는 주로 '가족' 간, 혹은 '연인' 간의 문제 이는 궁극적으로 가족의 문제에 포섭된다 인 것으로 드러난다. 주지하듯이, 박경리 문학에서 가족구성은 대체적으로 아버지가 부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불완전한 가족인 만큼, 역설적으로 가족의 문제는 그의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자의 경우에 주목해 보자. 박경리는 죄에 대해 불감증인 인물형상을 그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비록 법의 처벌을 받을지라도 죄의식을 갖지 않는 인물의 죄는 '잔여의 죄'로서 자리하며, 이는 그의 후손에게 '상징적 빛'의 형태로 이전된다. 여기에서 ①과 ②의 경우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가족'을 매개로 '죄의식'이라는 화두에 접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박경리 소설에서 '가족'은 대체로 해체된 상태에서 등장하거나,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는 방식으로 다루어진다. 그의 문학에서 최초로 부권이 확립되는 삼대에 걸친 가족이 등장하는 작품은 『단층』(1974)이다. 따라서 세대의 연속을 통해 이전되는 '상징적 빛 [죄]'과 관련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작품은 『토지』가 대표적이며, 이는 죄의식 관련 작가의 문제의식이 이어지는 도정의 끝자락에 놓이는 작품이라 하겠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박경리는 그의 초기작에서부터 죄의식 문제에 대한 탐색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 이어지는 장의 논의를 통해 그 궤적을 살피겠다.

### 3. 法の 집행과 분리된 '죄(의식)'의 해소 방안 모색

#### 3.1. 죄-속죄의 '불가능한 교환'과 '마조히즘적' 삶의 탕진

「환상의 시기」, 「밀고자」, 「인간」 등이 법의 집행과 분리된 죄(의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작품이라면, 중편 「타인들」(1965-1966)을 포함하여 『창』, 『단층』 등은 이러한 죄의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작품이다. 「타인들」의 '하진'과 『창』의 '맹시현'이 각자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로부터 놓

여나기 위해 고통 받는 인물이라면, 『단층』의 '한윤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결과적으로 죄의식을 갖지 않는 '노파'를 단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전자와 후자는 각각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으로 구분되며, 또한 죄의식 유무 여부에 의해서도 구별된다. 앞서 정리한 박경리 소설에서 드러나는 죄의식 유형 가운데, 「타인들」 『창』이 전자 '타자-인물'과의 관계 자체가 욕망의 일차적 대상으로 자리할 때 거기에서 파생하는 죄의식에 해당한다면, 『단층』은 후자 욕망의 일차적 대상이 물질(혹은 무형의 권력)일 경우와 관련을 맺는다. 본 절은 법의 집행과 무관하게 죄의식을 갖는 인물의 입장에서 '죄-속죄의 순환윤리'를 논의코자 하며, 따라서 「타인들」, 『창』, 『단층』이 분석 대상 작품이 된다. 이때 피해자의 생존여부는 박경리가 모색하는 죄-속죄의 순환윤리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창』은 ① 맹시현과 그의 죽은 처자(김정자, 기성)의 관계, ② 맹시애와 하상호의 관계, ③ 맹시현과 이지숙(맹시현과 불륜의 관계에 있는 김재경의 처) 관계 등을 통하여 죄와 법의 연관 및 죄의식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탐색한 작품이다. ①과 ②의 차이점은 법의 처벌 유무 및 피해자의 생존 여부이다. ②와 ③은 공통적으로 속물적 인간이 갖는 죄의식의 계산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①이 ② 및 ③과 구별되는 점은 속죄의 대상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sup>24)</sup> 맹시현은 내면에 자리하는 죄를 속죄할 대상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한다.

(맹시현) 「자네한테 속죄의 기회를 주려고 끌고 왔네.」 [...] 「보상을 하게 시애는 아직 살아 있다 말이야. 살아 있지. 죽어서 없어진 여자에게 아무리 보상을 할래도 할 길이 없네. 자네 다행이라 생각하게.」 / 하상호가 얼굴을 돌려 맹시현을 봤을 때 맹시현은 심약하게 웃고 있었다. 울고 있는

24) 애인 '송기화'와 맺어지기 위해 아내 김정자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던 맹시현은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처자를 방치하였고, 그 후 그는 처자의 생환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는 처자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 송기화를 확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것 같기도 했다. 무안을 타는 소년의 얼굴이었다.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소년의 얼굴. (71-72). [강조 및 인명: 필자] \* 이하 생략함.

방약무인하며 불같은 성격의 맹시애(맹시현의 여동생)는 가문의 마지막 남은 재산을 가지고 하상호와 도피행각을 벌이나,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 일로 맹시현의 가문은 몰락의 길을 재촉하게 된다. 한편, 하상호의 모친은 맹시애의 남다른 성격을 염려하여 하상호와 맹시애의 결혼을 반대한다. 이에 맹시애는 하상호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그 죄의 대가로 법의 처벌을 받는다. 의지박약하며 우유부단한 하상호의 성격은 이러한 맹시애의 삶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용문은 폐결핵에 걸려 다시 만나게 된 맹시애를 하상호에게 맡기면서 맹시현이 하상호에게 한 말이다. 이는 맹시현의 가슴 속에 내밀하게 자리하는 죄의 간접적 고백이며, 속죄할 수 있는 직접적 대상을 잃은 상황에서 비롯하는 절망의 토로이다. 하상호가 “시애를 보고 조금 슬퍼”하며, “조금 그리워하고, 선심을 써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간단하게 지나간 어느 페이지의 삽화같이 지난 일들을 되살려보는”(89) 것과 달리, 맹시현이 전쟁의 포화에 방치한 처자와 학대하여 죽음으로 내몬 애인 ‘송가화’는 그의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미워할 수도 사랑할 수도 속죄할 수도 없는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맹시현이 자신의 처자와 사랑하였던 여인 송가화의 죽음에 대해 갖는 죄의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와 같은 과거를 철저하게 ‘망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sup>25)</sup> 그러나 맹시현에게 있어 “세월은 망각의 정화작용을 해주지 못하였”(292)다. 그는 처자와 애인 송가화의 죽음에 대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현재의 삶을 살아가며, 그와 같은 죄의식으로부터 놓여나기 위해 자신의 생을 탕진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는 오십의 문턱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가정을 갖지

25) 데리다는 순환적 교환의 고리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망각(forgetting)을 제시한다. 그는 철저한 망각이 주기(give)에 대한 답례(return)의 순환을 끝맺는, 선물(gift)의 조건임을 강조한다. Derrida(1992: 35)

않고 호텔생활을 전전하면서, “적당한 생활을 위해 법망을 피하고 계집들을 농락한다.”(88). 밀수를 업으로 하며,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남창’의 역할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자학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맹시현의 삶의 방식은 “악(惡)의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악에 젖어들려는 그 무리한 행적에는 다분히 소아병적인 요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84)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속죄의 직접적 대상을 잃은 상황에서 촉발된 절망의 표현이며, 죄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에 대한 처벌을 자초하는 ‘마조히즘’의 심리적 기제<sup>26)</sup>에서 비롯한 삶의 방식이라 하겠다. 이러한 맹시현의 삶의 방식은 때로 가학의 충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식모로 일하는 ‘여주댁’의 딸인 ‘선영’을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과거 송기화에게 그랬던 것처럼 선영을 향한 가학의 충동을 느낀다. 이러한 “가학(加虐)의 충동”에 대해 맹시현은 “선영을 통한 자기 자신에 대한 가학”인 것으로 해석한다. 즉 그것은 “자기 영혼에서 솟아나는 무구(無垢)한 애정에 대한 학대”이며, 또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신적 살해의 범죄자로서 기화를 희생시킨 그 독아(毒牙)를 선영에게“(292)<sup>27)</sup> 반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6) 프로이트는 ‘도덕적 마조히즘’을 무의식 상태의 죄의식으로서, ‘죄가 되는’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마조히즘 환자는 형벌을 자초하기 위해서 부적당한 일을 하며, 자신의 이익에 반해서 행동해야 하고, 현실 세계에서 자신에게 열려 있는 좋은 전망을 망쳐 놓아야 하며, 급기야는 자기 자신의 현실적 존재 자체를 파괴해야 하는 태도를 보인다. Freud(1980: 170-182)

27) [본문 인용] 그 가학(加虐)의 충동은 선영을 통한 자기 자신에 대한 가학은 아니었을까? 자기 영혼에서 솟아나는 무구(無垢)한 애정에 대한 학대임이 분명하다. 선영에게 맹시현 스스로가 말했듯이, 지금 그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신적 살해의 범죄자로서 기화를 희생시킨 그 독아(毒牙)를 선영에게 들어대려 하고 있다. 그 독아는 애정과 더불어 자라나는 것이며, 애정이 깊어질수록 그 독도 짙어질 것이요 상대가 그 애정에 응할 시에는 한층 악질로 변할 것이다. [...] 그것은 사랑하는 여자를 통해 자기 자신의 정신을 살해하는 방법이다. 자해하는 방법이다. (292-293)

『창』에서 드러난 이러한 관념들, 즉 ‘죽은 자’에 대한 속죄의 불가능함으로 인해 배가되는 죄의식, 그 죄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자학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학대를 통한 자학 등은 그보다 앞서 발표된 중편 「타인들」에서 그 맹아를 보인다. 「타인들」의 주인공 ‘하진’은 한국전쟁 당시 지리산 토벌대에서 활약한다. 그때 그는 동료들과 함께 한 여인을 윤간하고 살해한다. 그런데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이 사랑하였던 여인이라는 점이 작품의 개연성을 저해하고 있으나, 『창』과의 관련선상에서 이 작품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이처럼 인간성을 부정하는 비인간적 행위를 ‘전쟁의 탓’(194)으로 돌리는 입장에 머물 경우, 이는 이 작품에 피상적으로 접근한 결과이다. 「타인들」은 전후소설로서의 특성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본고의 논의와 맥락이 이어지는 죄의식 관련 문제의식을 첨예하게 드러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동물과 다름없는 인간욕망의 추상성과 그로 인해 죄의식을 갖는 자아의 갈등을 주인공 하진을 통해 잘 형상화하고 있다.<sup>28)</sup> 하진은 전쟁터에서 애인을 윤간한 사건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 없으며, 그로 인해 화가로서의 삶을 방기하고 자학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형의 약점을 이용한 그의 이복동생 ‘하영’의 꼬임에 넘어가 ‘마약’을 복용하고 여러 여자와의 ‘성’ 행위에 탐닉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약이나 성의 힘을 가지고도 자기 자신에 염오감을 없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이로

28) [본문 인용] (하진) 「애당초부터 나는 결혼할 자격도 없고 여자를 사랑할 처지도 아닌 인간이었소. 그런 뜻에서 나는 문희에게 죄를 지은 사람ियो. 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부로서 가장 근본적인 희생을 당신에게 강요해 온 셈이지. 누구, 다른 여자를 사랑했던…… 때문에 그런 것은 물론 아니요. 나는 이미 나 자신을 포함하여 여자 남자 할 것이 인간은 모두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소. 내가 작품을 못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요.」 […] (하진) 「그러나 문제는 동물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면서도 내 양심이 항상 편치 못하다는 거요. 그뿐이겠소? 산산이 부서진 나를 주워 모으기 위해 나는 과거 무척 애를 썼단 말이요. 그러기 위해 나는 당신하고 결혼을 했을 거요. 그러나 헛된 일이었소. 잊어야만 했는데 잊을 수가 없었소. 내가 짐승이 되든 사람이 되든 아뭏든 잊어야만 했는데 잊을 수가 없었소. 세월이 갈수록 그것은 더욱더 길게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요. 전쟁이요. 전쟁 탓이었소.」 (130-131)

인해 때로는 자신이 상대한 여성에게 “가학의 충동”(182)을 갖기도 한다.<sup>29)</sup>

『타인들』과 『창』에서 이와 같이 죄의식을 갖는 인물들이 죄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취하는 ‘마조히즘’ 혹은 ‘사디즘’이 결합된 ‘마조히즘’은 속죄의 대상이 ‘죽은 자’라는 사실, 결과적으로 죄-속죄의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층』 역시 이와 유사한 인식을 드러내 보인다. 『단층』은 정근태와 명자의 관계,<sup>30)</sup> 정근태와 살해당한 권씨의 관계, 한윤희와 그의 남편 이상우의 관계 등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죄(의식)과 법(처벌)의 문제를 탐색한 작품이다. 그런데 죄의식 문제와 관련하여 중심에 놓이는 것은 자신의 모친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정신의 살해자’들을 단죄하고자 하는 한윤희 관련 서사이다. 이 작품에서 한윤희 모친의 간접적 살해자인 ‘고모뺨되는 노파’와 ‘사나이’는 자신들의 음해성 발언 및 행동이 결국 한윤희 모친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은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하겠는데, 이 작품이 본 절의 논의와 관련하여 의미를 갖는 부분은 가해자의 죄의식이 부재할 때 그리고 피해자가 생존하지 않을 때,<sup>31)</sup> 이 두

29) 죄(의식)에 대한 처벌/속죄를 위해 사디즘적 인물과 마조히즘적 인물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측면이 드러난 작품으로 『가을에 온 여인』이 있다. 여기에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30) 정근태는 한국전쟁 당시 일가몰살의 장면을 목격한 고아 명자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정근태는 이때 이미 기혼자였다. 그는 명자에게서 아들 기표를 얻는다. 그러나 그는 부친 정노인의 강요에 못 이겨 명자를 버리고 기표와 함께 본처 옥이네에게 돌아간다.

31) [본문 인용] 「알아요. 우리 엄만 그런 억울한 말을 듣고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기표 어머니 똥똥 묶어서 그런 곳으로 누군가가 끌고 다닌 거예요. 기표 어머니 살아 남았기 때문이에요. 똥똥 묶어서 끌고 다니더라도 살아 남은 사람은 승리자지요. 살아 남았기 때문에 기표에게 원한이. 네, 설령 이를 갖고 찢어 죽이게 보복을 맹세하였다 하더라도 끝이 있죠. 해결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용서할 수도 있구요.」 [...] (윤희) 「왜 사는지, 왜 사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내가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죽은 사람뿐이란 말일까? 그건 무의미, 아무 소용 없는 일, 그래도 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346-347)

상황에 있어서는 죄-속죄의 순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한윤희는 남편으로부터 받은 배반의 상처 때문에 죄 없는 죄인이 되어 자살한 모친에 대한 연민을 되새기고, 모친의 가해자들을 단죄코자 하나 결과적으로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는 가해자들로 인해 더욱 절망하게 된다. 한윤희는 그들로부터 죄의 고백 듣기를 간절히 원하나, 결국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상 살핀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죄-속죄의 순환운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때 피해자가 생존하지 않은 점, 그리고 가해자의 죄의식이 부재하다는 점은 각각 죄와 속죄의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노정한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양자관계만을 전제하는 폐쇄적 구조에서 그러하다. 「타인들」의 경우, 하진 자신이 운간·살해에 가담하였던 옛 애인의 조카를 돕는 방식으로 간접적 속죄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이 하진의 죄의식을 결정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적 관계를 통한 죄-속죄의 순환운리를 전제한 결과라 하겠는데, 이러한 폐쇄적 구조는 결국 스스로를 처벌함으로써 삶을 탕진하는(죄의식에서 놓여나고자 하는) '마조히즘'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었다. 이어지는 논의와 관련하여 본 절이 시사하는 바는 첫째, '죽은 자'에 대해서는 속죄가 불가능하다는 점, 혹은 '죽은 자'로부터는 용서받을 수도 없다는 점이다. 둘째, 죄-속죄의 순환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자관계, 즉 폐쇄적 구조에 머무르게 하는 방식의 한계이다.

### 3.2. 罪의 '고백'과 '사랑/가족'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

앞 절에서 제시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타인들」, 『창』, 『단층』을 대상으로 살피겠다. 세 작품은 공통적으로 죄에 대한 '고백(진술)'을 중요하게 다룬다. 『단층』은 가해인물인 '고모뻘되는 노파'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죄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으므로 죄의 '진술'에 대한 입장이 나머지 두 작품과 상반되나, 「타인들」과 『창』은 이와 관련하여 상호 유사한 접근 방식을 보인다.

「타인들」과 『창』의 주인공 하진과 맹시현은 자신들의 죄(의식)을 내면에 간

직한 채 드러내지 않는다. 「타인들」에서 하진은 애인을 윤간·살해한 과거의 비밀을 전체 24개 章 가운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에서 아내에게 '고백'한다. 작품의 대부분은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는 하진의 자학적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독자는 왜 그가 그와 같이 자학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추측을 통해 접근해 나갈 수밖에 없다. 『창』에서는 맹시현이 마음속에 간직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죄가 법의 처벌을 받은 그의 누이동생 맹시애의 경우와 대비를 이루면서, 작품 초반부터 맹시애가 그의 동거인 김성애에게 하는 대사, 서술자의 서술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맹시현의 자학적인 삶의 원인이 되는 과거의 진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등장인물은 맹시현이 선영에게 그 사실을 고백하기까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창』에서 선영을 대상으로 한 맹시현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장은 전체 13장 가운데 열 번째 장에서이다. 「타인들」과 마찬가지로 『창』에서도 작품의 후반부에 죄의식을 갖는 인물의 '고백'<sup>32)</sup>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이들 작품에서 죄(의식)에 대한 '고백'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겠다.

여기에서 죄의 '고백'을 듣는 청자-인물의 존재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폐쇄적 구조를 벗어나서 죄의식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런데 「타인들」과 『창』에서 죄의식의 원천이 되는 사건의 고백을 듣는 청자-인물의 반응은 구별되어 나타난다. 「타인들」에서 하진은 자신의 비밀을 아내 '문희'에게 털어놓는다.<sup>33)</sup> 이와 같은 하진의 내밀한 고백이 있을 후, 이들 부부가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다.

32) Derrida에 따르면, '고백(confession)'은 그 고백을 듣는 사람에게 그의 전 존재를 제공하는 것이며, 용서(forgiveness)는 이러한 고백에 대하여 제공하는 선물(gift)이다. Derrida(1992: 121)

33) 하진이 돌보고 있는 '정애' 아버지는 하진의 선배였고, 하진은 정애의 고모였던 사람을 사랑하였다. 전쟁이 나자, 당시 의과대학생이었던 정애 고모는 의용군에 끌려 나갔고, 하진은 국군에 나갔다. 지리산 토벌대에 있었던 하진 일당은 어느 날 여자 한 사람을 끌고 가서 윤간한 후 죽인다. 그런데 그 여자가 바로 하진이 사랑하였던 정애의 고모였던 것이다.

「말을 하고 나니 속이 후련해지는데 생각한 것보다 시원해. 중병을 앓다 일어난 사람같이……」 (문희) 「당신은, 당신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당신은 괴로움을 저에게 나누는 거예요. 작품을 하세요. 이제부터 그림을 그리시란 말예요.」 (195).

여기에서 하진은 고백을 통해 그가 진 ‘죄’의 무거운 짐을 털어 놓은 것이며, 그를 사랑하는 아내 문희는 그의 짐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하진으로 하여금 과거의 죄가 짓누르는 무게를 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끈다. 하진이 ‘고백’을 통해 그 자신의 전 존재를 문희에게 제공한 것이라면, 문희는 그의 짐을 나누어가짐으로써 하진이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죄의식을 씻을 수 있도록 돕는다. 다소 통속적인 감이 있는 「타인들」의 이와 같은 결말은 『창』에서 유사한 구도를 취하되 변주되어 나타난다. 『창』에서는 맹시현의 ‘고백’이 있기 전에 서술자의 서술을 통하여 맹시현의 드러나지 않는 죄가 정리된다. 그에 따르면 맹시현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쪽으로 가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모두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혼자 북쪽을 향해 올라간다. “아내 정자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 주기를 바라며, 그 정자를 따라 어쩔 수 없이 운명을 같이할 수밖에 없는 어린것도 뇌리에서 밀어내며, 마지막 기차에 올랐던 맹시현의 행위는 이미 살인”(235)이었던 것으로 규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맹시현의 고백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며, 그의 애인 송기화에 대한 내밀한 살의까지 폭로된다. 맹시현은 아내와 이혼하고 송기화와 결혼할 것을 원하였으나, 유달리 집념이 강한 아내 김정자와의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에 대한 “살의를 품었”으며, 한국전쟁을 절호의 기회로서 이용하여 막상 그의 처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자, 송기화가 자신을 파괴하여 살인자로 만들었으며, 자신으로 하여금 살인자의 십자가를 지게 한 인물로 생각되어 그를 정신적으로 살해하여 결국 자살하게 만들었음을 고백한다(295-298). 이러한 맹시현의 고백에 대한 선영의 반응을 「타인들」에서 문희의 응답과 비교하여 살펴보자.

선영의 팔을 잡았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팔을 뿌리쳤다. 그리고 돌아서려 했다. 맹시현은 허둥지둥 돌아서려는 선영의 두 어깨를 짊 누른다. (맹시현) 「날, 날, 나를 용서해 주어.」 [...] 선영의 눈에는 아픔과 무한한 연민이 있었다. 그러나 애정은 아니었다. 한 가닥의 경계마저 있었으나 그것을 감추기에는 선영에게 여유가 있었고, 감추었다 한들 속을 맹시현도 아니었다. / 「날, 나를 용서해 주어, 나는 나, 나는 비천한 인간이다.」 [...] (선영) (저, 저, 전 힘이 없어요.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니 말예요. 그 큰 고통을 같이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이, 어, 어떻게 그걸 나누어 가질 수 있겠어요?) / 그렇게 사과를 하고 있는 눈이었다. [...] 늘 입가에 띠고 있던 냉소도 찾아볼 수 없었다. 동정도, 육친적인 애정도, 이해하는 우정으로써도 이 사나이를 구원할 수 없고, 최초의 여자 이브가 되고 한 마리의 비둘기가 되어야만 구원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선영은 그의 여자가 될 수 없고, 비둘기가 될 수도 없었다. 선영의 강렬한 감정은, 동정이나 이해하는 아픔으로써만이 그의 여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298-299).

「타인들」에서 하진의 고백을 들은 문희가 하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짐을 나누어 짊으로써 하진의 죄의식이 해소된 것으로 쉽게 처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창』에서 맹시현의 ‘고백’은 그와 같이 단순하게 처리되지 않는다. 자신의 ‘고백’을 들은 선영에게 용서를 비는 맹시현에 대해 선영은 그를 사랑하지 않기에 그의 짐을 나누어 가질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한다. 『창』에서 선영은 “강한 여자이며 리얼리스트”(354)로서 그려지는데, 그는 맹시현의 죄의식이 갖는 성격 내지는 그의 본질에 보다 냉철하게 접근한다. 선영은 “아무도 이분의 삶에 입김을 불어넣어주지는 못한다. 이분 앞에 있는 생활이란 별써, 별써 옛날에 굳어버린 바위에 불과한 거”(355)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불어서 맹시현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사랑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는다. “최초의 여자 이브”가 되지 않는 이상 그를 구원할 수 없을 것임을 확신한다. 맹시현은 자신과 죄의 짐을 나누어 갖기를 거절한 선영과 대면한 이후 “마지막의 구원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썰물같이 육지 방천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것”(354)으

로 생각한다. 맹시현 또한 그 “자신이 갇힌 고리를 넘어설 수 없”(355)으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선영의 ‘사랑’을 얻어 새로운 ‘가정’을 이름으로써 자신이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를 버린다.

『단층』의 한윤희는 남편 ‘이상우’가 자신에게 남겨진(남겨질) 재산을 탐내어 꾸민 음모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자살한 모친과 관련된 과거의 아픈 기억 속에 매몰되어 간다. 한윤희는 자신이 만약 이상우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생모와 관련된 추억을 되새기며 분노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호감을 갖는 청년 ‘윤수용’에게 말한다. 한윤희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교묘한 방법으로 “생명줄과도 같은 돈”을 탈취하고, 자신의 생모를 음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노파’와 ‘사나이’를 찾아가 죄의 ‘고백’을 듣고자 한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노파’ 앞에서 ‘한윤희’는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겠다고 마음속으로 외친다. 그러나 당시의 사건을 조작하는 노파의 거짓 ‘진술’에 한윤희는 절망한다. 공모하여 한윤희의 생모를 죽음에 이르도록 한 ‘노파’와 ‘사나이’는 한윤희를 간첩혐의로 거짓 투서하는데, 한윤희는 이 사실을 역이용하여 그들로부터 과거의 죄에 대한 “진술서 같은 것”을 받아 낸다. 그는 “양심에는 무서움이 없어도 철창은 무서웠”기 때문에, 그들이 작성한 “한오리의 회한도, 한 여자를 비참히 죽게 한 죄책도 없이 거짓 눈물과 거짓 음성으로 진술한 이 진술서”(398)가 무용지물임을 깨닫는다.<sup>34)</sup>

『창』과 『단층』은 맹시현과 한윤희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창』의 맹시현이 ‘선영의 사랑’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의 가능성”일 것으로 기대하였다면, 『단층』의 한윤희는 “가족의 순애보”를 통해 죄와 처벌의 사슬에서 놓여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대사는 이를 시사한다.

34) 이러한 깨달음은 ‘순수형식’으로서의 법이 갖는 한계와 맥락을 같이 한다. 들뢰즈에 따르면, 법은 인식 대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술’을 통해서만이 확정되며, 처벌행위를 통해서 밖에 진술되지 않는다. Deleuze&Guattari (1997: 85-86)

「기표 엄마 그인…… 이제 행복해졌어요. 착한 여자, 아니 이젠 엄마이지만요. 거기다가 착한 아들이니까 노후가 무척 아름다울 것 같아요.」 「거보세요. 거기에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아저씨도 우릴 찾았구요. 높은 이상과 거룩한 사명은 없지만 거긴 가족이라는 순애보(純愛譜)가 있지 않습니까?」 「하긴 수용씨에게도 우리는 있겠군요. 어머님과 누이동생 그리고 매부…… 난 늦었어. 소위 가족의 순애보가 없어요.」 / 윤희는 까르르 소리내어 웃는다. 「내 가족이 되세요. 내 가족이……」 / 윤희는 굳게 입을 다물어버린다. (385-386).

한윤희는 자살하기 전 마지막으로 윤수용에게 보낸 편지에서 “혈연”(398)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다.<sup>35)</sup>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목해 보자. 2장에서 박경리 작품에 나타나는 죄의식 유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의 처벌과 분리되어 죄의식이 유발되는 경우와 법의 위반에 대해 죄의식이 부재하는 경우 모두가 궁극적으로 ‘가족’ 문제로 귀결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절에서 살핀 『창』과 『단층』은 죄(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시사하는 차원에 그친다. 피해자가 부재하는 『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죄의식의 주체가 부재하는 『단층』은 청산되지 않은 ‘잔여의 죄’를 남기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맹시현과 한윤희는 ‘자살’로서 대처한다.<sup>36)</sup> 그런데 박경리의 죄의식에 대한 탐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창』(1970)과

35) 윤수용 역시 한윤희가 행복한 가정을 가졌다면, 과거의 간접적 살해사건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을 본다. (용기란, 끈질긴 집념이란 결코 강자들에게 있는 건 아니다. 짓밟히고 짓밟히는 약자, 그 약자가 일어설 때 무서운 거지. …… 윤희에게 인생이 없었다. 어진 남편 만나서 아이들 낳고 살았다면 남편과 아이들이 멩어가 되어 그는 불행한 죽음, 비참한 추억에 다시 뛰어들지는 않았을 거야.) (292)

36) 주판치치가 『오디푸스 왕』과 『햄릿』 분석에서 죽음(자살)이 채무‘죄’의 변제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본 것과 달리, 박경리는 ‘자살(죽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방책이 아님을 강조한다. 이는 『토지』를 통해 잘 드러난다. Zupančič(2004: 273, 283-284) 참조.

『단층』(1974)의 집필 시기는 『토지』(1969~1994)가 집필되던 시기와 겹치는데, 『토지』는 앞의 두 작품에서 완결되지 않은 죄의식 관련 탐색을 이어가고 있다. 『창』과 『단층』이 죄 문제를 조밀하고 집중적으로 탐색한 작품이라면, 『토지』는 이를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다루면서 작품의 주요한 골격으로 하고 있다. 『토지』가 앞의 두 작품과 관련하여 크게 차별화되는 점은 죄 문제를 가족사 차원에서 다룬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 구원의 가능성으로서 살핀 ‘가족’의 문제는 ‘가족사 소설’인 『토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다 분명한 윤곽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 4. 세대의 연속을 통한 ‘상징적 빛 [죄]’의 이전과 代贖 양상

### 4.1. 罪의 상대화 및 ‘상징적 빛 [죄]’의 이전 양상

『토지』 이전에 발표된 작품을 대상으로 죄 문제에 대한 박경리의 문제의식 및 죄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창』, 『단층』 이외에도 『노을진 들녘』(1961~1962), 『가을에 온 여인』(1962~1963), 『나비와 영경퀴 [원제: 죄인들의 숙제]』(1969) 등의 장편에서 죄의식 문제에 경도되는 박경리의 작가의식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선행 작품과 『토지』가 차별화되는 점은 일차적으로 『토지』가 ‘가족사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과 연관된다. 이는 『토지』의 주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이되, 본고는 이러한 형식이 선행 작품에서 완결하지 못한 죄의식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본다. 죄의식을 본격적으로 다룬 『창』, 『단층』까지의 작품이 가해자와 피해자간, 혹은 죄의식의 원인과 죄의식의 주체간 양자관계의 폐쇄적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면, 『토지』는 그러한 폐쇄적 구조를 탈피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죄의식 문제가 한 주체의 문제에서 가족 내지 가족사의 문제로 확장된다는 점과 관련을 맺는다. 2장에서 정리한 바 있

듯이, 죄의식은 법의 처벌과 필연적인 관계에 놓이는 것이 아니며, 법의 처벌을 받을지라도 가해자의 죄의식이 부재할 경우 그것은 '잔여의 죄'로 남는다. 또한 3장에서 『창』과 『단층』의 분석을 통해, '죽은 자'에 대한 죄의식은 죄와 속죄의 순환 윤리를 완성할 수 없다는 점, 죄의 '고백' 혹은 '진술'을 통한 죄의식의 해소 여부는 그것의 주체 혹은 수용자의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주인공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자살' 또한 죄의식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궁극적인] 해결책일 수 없다는 점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본고는 『토지』가 죄의식 관련하여 선행 작품에서의 문제의식을 보다 거시적·다층적·상대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거시적이라 함은 죄의식을 개인의 차원이 아닌 가족사, 나아가서 민족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토지』는 봉건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가 충돌하는 구한말에서 제국주의의 폭력이 지배하는 일제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함으로써 罪를 규율하는 법도 내지 가치의 기준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작품이다. 이는 선행 작품에서부터 제기되어온 '순수형식'으로서의 법의 한계가 『토지』에서 첨예하게 드러남을 의미하며, 신분제도의 제약 하에 있는 다양한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함으로써 죄의식에 대한 다층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토지』에서 罪는 상대화되는데, 이는 윤씨부인 및 김개주-김환 부자 등을 통하여 잘 드러난다. 박경리는 『토지』에서 죄의식 문제를 궁극의 지점에까지 이끌고 나아가 '잔여의 죄'가 청산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논의는 이어지는 절에서 이루어지며, 본 절에서는 죄의식 내지 '잔여의 죄'로서의 '상징적 빛'이 상대화되는 양상 및 후속세대에 승계되는 양상을 간단히 정리하겠다.

박경리 문학에서 물질적 탐욕에서 비롯한 범죄를 저지른 인물은 법의 처벌을 받더라도 대체적으로 죄의식이 부재한 반면, 가족·연인 등 인간관계에서 비롯하는 죄의식은 인물의 내면에 깊숙이 각인되는 양상을 보인다. 『토지』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는 최치수 살해에 연관된 인물들이며, 후자의 사례로 윤씨부인과 김환을 들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인물로 최치수의 살해자인 몰락 양반 김평산, 최치수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으

나 그의 살해를 교사하고 최치수 및 윤씨부인 사후 최참판가의 재산을 착복한 양반 조준구, 최치수 살해와 직접적으로는 무관하나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추구하다 이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평사리의 소작인 칠성이 등이 있다. 여기에 최치수의 아들을 낳음으로써 종의 신분을 탈피하고자 하였던 귀녀가 주유 인물로 포함되나,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점에서 앞의 인물들과 구별된다. 귀녀는 강포수와와의 관계를 통해 잉태한 두메를 출산하고 처형되기 직전 “개심(改心)”하여 “칠성이 무죄하다는 말”(2:312)을 남긴다.<sup>37)</sup>

여기에서 죄의식을 갖는지의 여부, 신분 등을 변수로 하여 죄의 무게를 김평산·조준구-칠성이-귀녀의 순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는 후속 세대에 의해 상징적 빛이 탕감되는 양상과 관련을 맺는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만주 벌판에서 활약하다 생을 마감한 평사리의 청백리 이동진이 개탄하였듯이 당시 양반은 “죄인”이라 할 수 있는데, 신분제의 폐단에서 놓여나는 것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귀녀의 경우 스스로 개심하고 처형되는 것에서 죄-처벌의 순환을 마감한다. 강포수는 두메의 모친 귀녀의 비밀을 스스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지키는데, 두메는 뛰어난 자질을 가진 인물로서 모친의 행적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상징적 빛’과 무관하게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인물이 된다. 한편 최참판댁의 소작인으로서 물질적 탐욕이 강하고 왕성한 생식력을 가진 칠성은 귀녀가 최치수의 아들을 낳은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귀녀와 관계를 맺는다. 이 일로 그는 최치수 살해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되는데, 그의 유족 가운데 아들들은 굶주려 죽고 임이네와 임이가 살아남는다. 임이네 역시 물질적 탐욕과 왕성한 생명력을 갖춘 인물로 이후 서사에서 탐욕의 화신으로 형상화되며, 남편 칠성의 일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처형된 칠성의 탐욕은 임이네를 통해 재현된다고 하겠는데, 임이네와 이윤 사이에서 출생한 이흥이 이들의 죄에 대한 상징적 빛을 떠맡는다. 그는 생모 임이네를 혐오하는 데서 오는 죄의식과 연민 사이에서 방황하는 청년기를 보낸다.<sup>38)</sup>

37) 1996년 솔출판사(1~16) 판본을 텍스트로 하며 (권:면)으로 표기한다.

38) 이러한 흥의 방황은 『토지』(3부-2편-12장. 강물에 띄워보내고, ⑧권)에 잘

몰락양반으로 무위도식하며 양반의 신분을 이용하여 갖은 패악을 저지르는 김평산은 최치수를 직접 살해한 인물로서, 처형되는 순간까지 양반의 신분을 내세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가 처형된 후 그의 아내 함안댁은 자살한다. 김평산과 함안댁의 소생인 거복과 한복이 살아남는데, 형 거복은 김평산의 재현이라 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하며, 동생 한복은 살인 죄인의 자손으로서 갖은 수모를 감내하며 고향 평사리를 지킨다. 죄의식 없이 처형된 김평산과 친일파 [밀고자]로 갖은 악행을 저지르는 거복의 죄는 한복과 그의 후손에게 상징적 빛으로 이전된다. 상징적 빛의 이전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적인 인물은 조준구라 할 수 있다. 그는 최참판가의 외척으로 최치수 살해를 교사 하였지만, 이에 대한 분명한 물증을 남기지 않으며, 추후 최참판가의 재산을 착복하는 죄의식 부재의 인물로서, 선량한 평사리의 소작인 정한조를 일본인 현병을 시켜 사살하는 등 친일행위를 자행한다. 그는 법의 처벌을 피하여, 갖은 악행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하는 인물로서 「밀고자」의 '마포 아저씨', 『단층』의 '노파'와 '사나이' 등이 조준구의 원형을 이루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조준구의 처 '홍씨' 역시 탐욕적인 인물로서 조준구와 동일한 부류이며, 그의 곱추 아들을 학대한다. 조준구와 그의 처 홍씨의 죄의식 부재의 죄는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 아들 조병수에게 이전되어 탕감된다.

후자의 경우, 즉 인간적인 관계에서 비롯하는 죄의식의 문제는 살인·탐욕·절도 등과 같은 드러난 범죄의 경우와 달리, 『토지』에서 죄의 상대화가 보다 분명하게 적용되는 사례이며, 해당 인물들의 죄의식이 그들의 실존과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2.1.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윤씨부인의 비밀'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윤씨부인이 김개주에게 겁간당하여 사생아 김환을 비밀리에 출산한 사실은 이를 알고 있는 우관, 문의원 그리고 사건의 직접적 관련자인 김개주 등에 의해 죄가 아닌 것으로 규정된다. 그들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된 이면에는 조선왕조를 이끈 양반의 법도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윤씨부인 역시 양반계급에 반기를 든 인물로서, 그의 죄의식을 구성하

는 내밀한 원인은 청상의 과부로서 육체의 정절을 훼손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있지 않다. 윤씨부인의 죄의식은 복합적인 층위에서 형성되는데, 그것은 자신을 겁간한 김개주, 적자 최치수 및 사생아 김환 등에 대해 갖는 감정과 관련을 맺는다. 그의 죄의식은 “부정(不淨)의 여인이며 아내와 어미의 자격을 잃은 육체적인 낙인이 빚은 절망 이외”에 “핏덩어리를 낳아서 팽개치고 온 빠져린 모성의 절망”으로서 드러난다. 보다 심층적으로 윤씨부인은 자신이 김개주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죄악의 정열”(2:209)로서 단죄하면서, 아들 최치수를 형리로 설정하여 스스로를 벌하는 삶을 살아간다. 윤씨부인은 자신의 내밀한 감정에서 ‘사랑의 이기심’을 발견하고, 여기에서 비롯하는 죄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모성을 결박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윤씨부인은 자신을 벌하기 위해 자신의 적자인 최치수에 대한 모성 ‘본능’을 억제한다.<sup>39)</sup> 이러한 윤씨부인의 자기-처벌행위는 『창』의 맹시현의 자학적 삶의 방식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의 법도를 벗어난 사랑 혹은 혈연관계에서 비롯하는 윤씨부인의 죄의식은 김환에게 승계된다. 김환은 태생적으로 윤씨부인과 그 죄의식의 원천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김환이 그 자신에 대해 “아버지는 살인귀! 어미는 부정녀?”, “나도 살인귀, 내 그 여인도 부정녀!”(6:390)라고 자탄하듯이, 그는 겁간당한 여인의 몸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인물이다. 따라서 그는 존재의 근본 층위에서 법도가 규정한 罪의 지배를 받는 인물인 것이다. 김환은 또한 최치수의 아내인 형수 별당아씨를 사랑하여 도피하는 패륜을 범함으로써 아버지의 죄를 배가하여 반복한다. 그러나 윤씨부인의 죄가 조선왕조 양반의 법도와 관련하여 상대화되듯이, 동학의 접주로서 시대의 변혁을 꾀하고자 하였던 김개주의 아들, ‘구천’의 패륜은 그가 동학잔존세력을 규합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하

39) 프로이트는 죄책감의 원인을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 초자아에 대한 두려움의 두 가지로 보며, 첫 번째 죄책감이 본능만족을 단념하도록 강요하고, 두 번째 죄책감은 본능 만족을 단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징벌까지도 단념하도록 요구한다고 본다. Freud(1997: 319)

는 과정을 통해 김환으로 거듭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라는 보다 큰 악의 세력과 관련하여 상대화된다고 볼 수 있다. 『토지』에서 구천과 별당아씨의 사랑이 김환의 기억 속에서만 아름답게 채색되어 묘사되고 있음은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토지』는 보다 보편적이고 다면적인 차원에서 죄의 문제에 접근한다. 김개주의 다음 대사는 앞의 문면과는 구별되는 각도에서 인간 사회의 선악 판별과 가치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드러낸다.

“나도 모르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 백성을 위하는 것도 하나의 도가 아니겠느냐? 나는 그 도 밖에서 이는 일시적 삭풍(朔風)일 게다. 혼돈 속에서만 말을 몰 수 있는 위인이야. 화평스런 대로를 시위 소리 들으며 대교 타고 갈 위인이 못 된다 그 말이니라. 내 그 동안 수많은 규졸을 거느리고 탐관오리를, 악독한 양반들을 목 베고 추호도 가차없었으나 그 게 사명감에서 한 짓인지 진정 자식 못하겠다. 그 밑물 같은 시기가 지나 가면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바닥 모를 허무의 아가리가 박새껏 나를 괴롭히는 게야. 실은 내 속에 이는 위한도 진정 그게 위한인가 믿을 수 없구나. 불민한 너를 위한 아픔도 진정 그게 아픔인가 믿을 수 없구나.”

(3:325)

시대의 변혁을 위해 수많은 살생을 범한 자신의 지난 삶을 반추하며 견잡을 수 없는 ‘허무’에 빠져드는 김개주의 위 대사는 김환에 의해 환기되는데, 이를 통해 선악 판단의 문제가 보편적인 차원에서 상대화됨을 엿볼 수 있다. 김평산의 최치수 살해와 동학집주 김개주의 양반살해는 살인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그 명분에 있어서 구별된다. 김평산의 살인이 개인적 탐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김개주의 ‘탐관오리’ 혹은 ‘악독한 양반들’의 살상은 시대의 변혁이라는 명분을 갖는다. 따라서 김개주와 김평산의 경우를 대비하여 볼 때 죄의 문제가 그 목적과 명분에 따라 상대화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위의 대사는 시대의 변혁이라는 명분 역시, 인간 살상이라는 죄 문제를 상쇄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피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 이는 또한 죄가

절대적으로 규정될 수 없는 것처럼 그와 대척 지점에 놓인 선 역시 마찬가지로 임을 인정한 것이라 하겠는데, 본고는 전자의 문제에 논의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동학잔존세력의 우두머리 김환으로 거듭난 구천이 만주에서 최서희의 남편이 된 길상을 만나 일갈하는 대사의 일부분에 주목해 보자.

“[...] 살생 아니하고 가음 아니하고 도둑질 아니하고 허언 아니하고 모함 아니하고 그 아니하는 성현을 먹고 마시고 입고 잠들게 한 것은 하나니 아닌 죄인들의 덕분이라, 소의 세상, 호랑이의 세상, 살인강도의 세상에서 어찌 성인들이 연명하여 도를 닦았겠느냐? 살아 생전에는 죄인들 덕분에 덕을 높일 수 있었고 죽어서는 또 극락 꽃밭에서 소요하는 신세, 그대 대성(大聖)은 무엇이나! 대오각성한 자가 대성이라, 무엇을 대오각성하였느냐! 살생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굶어죽을 것이요, 먹혀죽을 것이다. [...] 요만큼도 실은 아니 되는 일이로되 죄인의 명에를 지는 자는 있어야 할 것 인즉 그렇지이, 대성의 자리가 맑고 그 자리가 피로 물들지 않는 것은 무수한 죄인들의, 무거운 죄인의 명에 덕분이거늘 그 위대한 희생자는 도시 무엇이나! 영원한 육도(六道)윤회의 죄인들이요 육도 중에서도 천상(天上)만은 아득한 노예들이다, 그 말이나?”(6:399)

‘성현’ [善]의 존재 이면에 罪가 자리한다는 김환의 논리는 시대의 변혁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자행한 악을 반추하면서 허무를 느낀다는 김개주의 발언에 대한 항변으로 읽을 수 있다. 앞에 인용된 김개주의 대사가 김환에 의해 환기된다는 사실은 김환 역시 그의 부친과 동일한 부류의 인물임을 시사하나, 길상에게 던지는 위의 대사는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는 김환의 투사로서의 삶을 예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환은 별당아씨와의 패륜적 사랑을 마감한 이후, 동학잔존세력을 진두지휘하여 일본인 암살 등의 방법으로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한다. 이처럼 『토지』는 조선왕조의 몰락기와 일제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선악의 경계를 상대화하면서, 罪의 문제에 다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별히 시대의 변혁을 꿈꾸었던 김개주-김환 부자를 통하여 이와 같

은 작가의식이 드러나 있다.

『토지』는 서사의 지평을 시대의 문제, 민족의 문제 등으로 넓힘으로써 거시적·다층적·상대적 차원에서 선악 판단의 문제 특별히 罪와 관련하여 에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 작품들이 가해자와 피해자 내지 죄의식의 주체와 그 원인 간의 폐쇄회로 내에서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과 달리, 『토지』는 그와 같은 폐쇄회로를 탈피하여 죄의식의 형성과 해소 양상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하겠다.

#### 4.2. 제3의 대상으로 욕망 투여를 통한 죄의식의 해소

『토지』에서 최치수 살해 및 최참판가 몰락에 연루된 인물들의 후손들은 선대의 죄로 인해 죄의식을 갖는다. 본 절은 이처럼 선대의 죄를 '상징적 빛'으로서 심리적으로 승계받은 후손들이 그와 같은 빛을 탕감하는 양상에 주목한다. 앞서 김평산·칠성이·귀녀 등이 살인이라는 드러난 죄의 값을 치르고 처형되었으되, 그들의 죄 값이 상대화되는 양상을 정리해 보았다. 특별히 윤씨 부인·김계주에서 김환으로 이어지는 죄의식의 의미는 동학혁명이 담지하는 변혁에의 의지, 그리고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상대화되어 드러남을 앞서 살폈다. 『토지』의 제1세대 인물들에서 비롯하는 죄 문제는 김환을 비롯하여, 조병수·김한복·이홍 등의 후속 세대에 의해 존재의 근본 층위에 자리하는 죄의식의 문제로 치환되어 그것의 해소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작가의 탐색 대상이 되는데, 본고는 이를 '상징적 빛'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이후 논의를 통해 이들 후속세대가 짚어진 상징적 빛이 해소 내지는 대속<sup>40)</sup>되는 양상을 살필 것이다.

죄와 속죄의 순환윤리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적인 경우는 조준구 일가라 할

40) 기독교적 의미에서 '대속(代贖)' 또는 '구속(救贖)'과 구분된다. 기독교에서 '구속'의 상징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권세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권세에게 몸값을 치르고 사람과 교환하는 것이 구속이다. Ricoeur(1995: 98)

수 있다. 박경리는 수필에서 “이해(利害) 상관을 가늠하면서 박수도 치고 응원도 하는 구경꾼들”, “어떤 법의 조문에도 저축이 아니되는 검은 그림자 같은 범죄자를 누가 단죄”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서, 진정한 뜻에서 소설이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응시이며 “악에 대한 뜨거운 증오의 정열”(박경리 1981: 162-163)을 포괄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박경리의 초기작에서부터 『토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탐색되어온 죄-속죄/처벌의 문제는 이러한 그의 문학적 사명감의 구체화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용된 구절과 관련한 박경리의 문제의식이 예각적으로 드러난 작품으로 『단층』, 『나비와 엉덩퀴』를 포함하여 『토지』를 들 수 있다. 『단층』의 ‘한윤희’는 어떤 법의 조문에도 저축되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살’을 선택한다. 『토지』에서 나타난 조준구의 최참판가에 대한 악행은 법의 저축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죄의식이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한윤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단층』의 ‘노파’와 ‘사나이’의 행적과 연장선상에 놓인다. 한윤희의 대응방식과 대조되는 최서희의 조준구 응징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의 장이 필요하며,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본고는 조준구 부처의 악행이 그의 곱추 아들 조병수에게 상징적 빛으로 승계되어, 그가 이로부터 놓여나는 과정에 주목한다.

불구자로서의 번민이나 부모가 자식에게 가한 수도, 천지간에 맘도 몸도 기댈 수 없었던 처절한 고독, 그것은 병수 자신을 위한 목마름이었지만 그 목마름 같은 것을 누르고도 남을 크나큰 고통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이었다. 부모의 큰 죄는 바로 자신의 죄요, 부모의 악업으로 얻은 재물로 자신이 연명되고 있다는 그 뼈를 깎는 고통, 더러운 곡식을 아니 먹으려고 수없이 기도했던 자살, 그러나 생명에의 집착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포기하였고 더러운 물 더러운 곡기를 미친 듯 빨아당기지 아니했던가. 병수는 죽지 못하는 치욕 때문에 미쳐 날뛰었다. 그를 구워한 것이 바로 이 소목일이었다. 이제 병수는 용서를 받은 것이다. 자학은 일(예술)에서 승화되었다. 일은 그에게 만남이었다.(9:340)

박경리는 죄-속죄의 순환운리를 탐색하는 자신의 문학적 여정에서 '잔여의 죄'에 대해 마지막까지 추궁하는 입장을 취한다. 조준구의 죄참판가 재산 착복과 관련된 악행은 최서희에 의해 '합법적'으로 응징된다. 그러나 조준구 부처의 죄의식의 부재함, 이어지는 악행, 그리고 법의 집행 너머에서 자행된 최치수 교사는 '잔여의 죄'로 남는다. 죄의식이 부재하는 조준구의 죄의 계정에 서는 결코 청산될 수 없는 악행인 것이다. 이는 그의 후손 조병수-조남현에게 존재의 본질 차원에서 '상징적 빛'으로 승계되며, 이를 청산하기 위한 조병수의 몸부림은 처음에 자학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죄의식 부재의 죄, 법 집행 너머의 죄를 단죄할 수 없다는 절망 때문에 『단층』의 한윤희가 죽음을 선택한 것과 유사하게, 조병수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부친 조준구의 악행에서 비롯한 죄의 빛을 청산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학' 혹은 '단순한 자살'이 죄-속죄의 교환을 이루는 방편일 수 없음을 『토지』는 『창』에 이어서 드러낸다. 자신이 떠맡은 빛의 무게 때문에 고통받던 조병수를 구원한 것은 소목 일이었다. 인용문에 드러나듯이 조병수는 "일(예술)"을 통해 "자학"이 아닌 구원에 이른다. 조병수의 죄의식(X)은 법의 어떤 조문에도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의식 부재하는' 부친의 악행으로 인한 빛을 대신 짊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가 죄의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상(-X)은 원천적으로 부재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조병수의 절망은 비롯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학 자기 처벌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조병수는 제3의 대상, 즉 예술 [소목일]에 욕망을 투여,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죄와 속죄의 폐쇄적 순환 구조를 넘어선다.<sup>41)</sup>

죄참판가 재물을 탐내어 최치수를 살해한 김평산은 처형되며, 그의 아내 함안택은 자살하나,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법에 의해 처형된 김평산의 죄값은 이것으로 청산되지 않는다. 그 '잔여의 죄'는 김한복-김영호로 이어지는 후손에게 이전된다. 부모의 죽음 이후 함안의 외가에 보내진

41) 『토지』의 인물들이 제3의 대상으로 삶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갈등해소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즐고, 「갈등구조를 통한 박경리 『토지』의 담론특성/미학 고찰」, 『비교문학』<sup>33</sup>에서 논의한 바 있다.

한복은 형 거복과 달리, 철새처럼 평사리를 다시 찾는다. 평사리의 봉기가 한복에게 말하듯이, 그는 “괴정에도 안 죽고 승년에도 안 죽고”, 부모 없이 “악새풀같이 맹도 질기”(3: 111-112)게 살아남는다. 그는 ‘살인죄인’의 아들에게 보내는 멸시와 천대의 눈길을 감내하며, 거지로 떠돌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사리에서 일가를 이룬다. 이와 달리 거복은 일본의 밀정노릇, 계집장사 등 갖은 악행을 일삼아 부친 김평산의 재현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다. 한복은 이러한 김두수(거복)과 형제지간임을 이용하여, 김환을 중심으로 한 동학잔존세력의 독립운동을 돕는다. 그는 독립자금을 만주에 전달하는 일을 수차례 수행한다. 한복은 독립자금 전달을 위해 두만강을 넘으면서, “파렴치한 동기로 살인한 아버지와 매국노가 된 형의 죄를 보상하는 것이 이 길ियो, 지하에 잠든 어머니의 명든 자궁심을 치유하는 방법도 이 길이라 생각”(7:287)한다. 이에 그는 용정의 길상에게 “이번의 심부름은 살인자인 아버지와 매국노인 형에 대한 보상이란 생각을 했”(7:303)다고 말한다. 한복은 이처럼 비록 혈육을 배반하는 일일지라도 조국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헌신함으로써, 아버지와 형의 망령을 내려놓고 “죄인”이라는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는 길상의 가르침을 따른다. 한복은 독립운동세력을 돕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용정행을 하는 과정을 “죄인”이라는 의식을 극복하고 “깨끗한 애국자”로 거듭난다. 한복 역시 악행에 대해 죄의식이 부재하는 부친과 형의 죄업이 지워준 빛을 조국독립이라는 제3의 대상「일」을 통해 청산해 나아간다.

김환의 경우, 죄-속죄의 순환윤리가 보다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앞서 살폈듯이, 동학접주 김개주와 양반가 수절과부 윤씨부인 사이의 사생아이자, 형의 아내를 가로챈 간부 구천 [김환]의 죄업은 존재의 근본 층위에 자리하는 것이며, 그것은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상대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는 ‘별당아씨’ 사후 김환으로 거듭난다. 김환은 동학잔존세력을 이끌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하는데, 그는 길상의 주선으로 만주별판에서 독립 운동하는 사나이들과 교류한다. 김환이 만주에서 이동진과 대면하는 다음 장면에 주목해 보자.

(이동진) “자네가 이십 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살았는가,

그건 내 알 바 아니나 설령 의병장을 하였다손 치더라도 그것으로 과거의 파렴치가 상쇄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의병장 아니라 왜놈의 사귀신(일본 친황을 이름)을 찢러죽였다 하더라도 말짱 헛거야.”

담뱃재를 떨어내는 이동진의 손이 덜덜 떨다. [...]

(김환) “그런 말씀이 두려웠으면 찾아왔겠습니까? 고매하신 도덕군자가 무서웠다면 말입니다.”

(이동진) “뿔이라구? 이놈!”

(김환) “살인, 간음, 도둑의 집안이어서도 아니 되겠으나 허울만 좋고 편협한 도덕군자의 집안이어서도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수신제가(修身齊家)의 그 어정쩡한 자리는 당분간 아녀자에게나 맡기시는 것이 어떠 하올지.” (6:396)

청백리로 알려진 이동진은 하인 김길상과 최서희의 결혼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인물이다. 그런 만큼 김환이 조국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헌신한다 할지라도, 과거의 파렴치, 즉 간부로서의 행적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을 김환에게 던진다. 이에 맞서 김환은 간부로서의 자신의 죄를 인정하되, 도덕군자의 편협함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긴요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일본 제국주의라는 보다 큰 악에 맞서 싸우는 현실에서 좁게는 양반가의 법도, 넓게는 도덕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냉소하는 김환과의 대화 끝에 이동진은 “지난날의 양반이란 이제 죄인”이며 “자학하지 않으면 아니”됨을 통감한다.<sup>42)</sup> 김환의 이러한 논리는 가문의 복원을 위해 하인과 결혼한 최서희에 의

42) 이와 관련하여 박경리 수필집 『Q씨에게』의 두 번째 수록된 글에 담긴, 도스토예프스키의 「프로할징」이라는 단편에 대한 단상에 주목해 보자. 다음은 그 가운데 일부이다. / 도덕이나 법률이라는 불완전한 규제를 견어 짓히고 보다 깊은 곳으로 보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 인간을 보고 느끼는 작가의 가치관은 얼마든지 불완전한 규제에서 이탈할 수 있는 것이고, 상황에 던져질 인간을 사회가 기준한 가치를 뒤엎어서 가치 짓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작가의 전형은 아닐 것이며 모든 습관이나 제도나 법률이 인간 본질에 멀리 미치지 못한다는 어쩔 수 없는 결합 때문이죠. 박경리(1981: 18)

해 허용된다. 김개주/윤씨부인-김환/별당아씨로 이어지는 불륜 [괘륜]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최서희라 하겠는데, 그는 일본인을 암살하고 왜헌병에게 쫓기는 김환을 평사리 최참판가 '사당'에 숨겨준다. 이를 통해 최서희는 보다 큰 악에 대항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자체와 함께 하는 죄의식을 넘어서고 있는 김환의 논리를 수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최서희를 초점화자로 하여 김환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옛날같이 절망의 정열, 스스로 위기에다 몸을 내던지고자 하는 감정과 제어하려는 의지와와 싸움, 그 날카로움, 오뇌, 갈등을 찾아볼 수 없다. 자연이다. 김환은 이제 자신을 자연으로 환원(還元)시킨 것일까. 서희는 그것을 느낀다.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극히 높은 영혼의 경지를 느낀다.”(8:49).

#### 4.3. 순수형식으로서의 (식민지) 법의 처벌과 상징적 빛의 탕감

2장에서 논의하였듯이, 박경리는 「환상의 시기」, 「밀고자」 등의 중·단편을 통해서 옳이 법의 상위 원리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순수형식'으로서 존재한다는 인식을 서사전개와 인물의 대사를 드러내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법의 존재 형식이 '상징적 빛'의 탕감과 관련을 맺는 양상을 살피겠다. 앞에서 『토지』의 표층적 서사에 주목하여 논의가 진행될 것임을 언급한 바 있는데, 『토지』 1,2부 서사의 근간이 되는 '최치수 살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들이 남긴 '상징적 빛'의 문제는 이러한 본고의 의도에 부합한다. 이와 더불어 『토지』에는 '형무소', '감옥', '수감' 등의 사법적 용어들이 인물의 표층적 발화를 통해 빈번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동학잔존세력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을 하는 인물들의 상당수가 형무소에 감금되는 경험을 갖는다. 대표적인 예로 김길상을 포함하여 계명회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수차례 수감된 경우를 들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상징적 빛'을 인계받은 인물들이 일제강점기 법의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죄의식'을 상쇄하고 '상징적 빛'을 대속하는 양상에 주목하겠다. '순수형식'으로서의 법에 대한 인식에 기대어 볼 때, 『토지』의 인물들은 오히려 옳을 담보하지 않는 식민지 법의 처벌을 받

음으로써 '상징적 빛'에서 놓여나는 기회를 갖는다. 강도 높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시기를 배경으로 한 『토지』 4,5부에는 '코스모폴리탄'을 자처하는 '오가다 지로'를 매개 인물로 자국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일본(지식)인들이 등장하는 章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가운데 오가다의 누이 '유키코'가 한, "국가나 민족을 업고서 저지르는 도둑질이나 살인은 범죄가 아니라는 것과는 통한다. 하여 사람들은 얼굴 없는 하수인, 동물적인 광란에도 수치심 죄의식이 없게 된다"(10:354)라는 대사에 주목해 보자. 이 발언의 이면에는 일본 제국주의 법이 선을 보장하지 않음을, 오히려 악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자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제국주의 지배를 받는 조선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들이 식민지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선대의 죄업을 '상징적 빛'으로 이어받아 형성된 죄의식을 상쇄할 수 있는 계기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 김길상이 계명회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었을 때, 그의 둘째 아들 윤국의 내면에서 펼쳐지는, '형무소는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살인 도둑놈 사기꾼, 남한테 뭉쓸 짓을 한 놈들이 가는 곳이다! 반역자, 제 민족 팔아먹은 놈이 가는 곳이다! 내 땅, 내 민족이 사는 곳, 저 도적놈들이 셋별같이 빛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곳이 형무소라, 왜 그래야 하나 왜 그래야만 하나.'(11:113-114)와 같은 생각은 본고 입장을 뒷받침한다.

김평산 일가의 경우, 김평산이 살인죄로 처벌되고 함안댁이 자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 김한복이 잔여의 죄를 '상징적 빛'으로 떠안고 그로 인한 죄의식을 갖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는 독립자금을 만주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수행함으로써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생각에서 탈피하게 된다. 『토지』는 여기에서 나아가, 김평산의 손자이자 김한복의 아들인 김영호가 광주학생운동의 여파로 진주의 각급 학교에서 번진 시위운동 및 맹휴(盟休)계획을 한 "주모자의 한 사람으로 경찰에 연행된" 사건을 겪으면서, "진정한 뜻에서 한복이 일가"가 평사리 "마을사람들과 화해"하도록 한다. 그 일로 김영호는 "영웅"이 되며, 독립자금 전달 임무를 마치고 만주에서 돌아온 한복은 "영웅의 부친"이 된다. "중인출신의 조모와 살인죄인의 조부, 동네 머슴이던 부친과 거렁뱅이였던 모친, 그런 가계"의 김영호는 "희망의 대상으로

부상”하며 한복 일가는 그 일을 계기로 “회복할 수 없었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10:64)을 되찾는다. 김평산이 후손에게 남긴 ‘잔여의 죄’는 그의 손자대에서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법의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탕감된다. 살인죄로 처형된 조부대의 법 집행이 김평산 가문에 ‘상징적 빛’을 남긴 것이라면, 김평산의 손자 김영호가 대의를 위해 식민지 법의 집행을 받은 것은 가계를 타고 이어져 내려온 빛을 청산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한복이 처음 독립자금 수송책을 맡았을 때, “살인죄인으로 세상 끝내기 보담이야 애국자로 세상 끝내는 편”이 낫기 때문에 그 일을 기꺼이 떠맡았으며, 그 일을 통해 “빛을 갚”(11:241)겠다는 의지를 갖는다. 이러한 한복의 의지는 그의 아들 영호가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식민지 법의 처벌을 받음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회복으로 이어진다.<sup>43)</sup>

한편, 『토지』에서 김한복-김영호로 이어지는 김평산의 후손과 조병수-조남현으로 이어지는 조준구의 후손은 일본 제국주의 법을 매개로 다시 인연을 맺는다. 두 가문의 후손을 맺어주는 연결고리를 하는 인물은 유리걸식하다 아비를 잃고 평사리의 주모 영산택이 거두어서 수양딸로 기른 숙이와 그의 아우 몽치이다. 숙이는 김영호의 배필이 된다. 한편, 몽치는 지리산에서 김휘 일가와 인연을 맺으며 성장하는데, 김휘는 조병수의 목공예를 전수받는다.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한복의 아들 김영호 일가와 조병수의 제자 김휘 일가는 다시 관계를 맺는다. 김영호의 처남이 되는 몽치는 징용을 피하여 도망중인 청년을

43) 다음의 상황 역시 본고 논의 관련 주목된다. 한복의 장녀 인호는 살인죄인의 후손으로서 마땅한 혼처가 나지 않아, 겨우 결혼을 하였으나 파경을 맞는다. 추후 인호는 일본에서 노동운동에 연루되어 ‘까막소’ 신세를 지고 병들어 돌아온 야무와 맺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 인용에 주목해 보자. / 까막소, 음산하고 공포감 없이 사람들은 그곳을 생각하지 않는다. 인생의 끝이요 살아 있는 무덤, 그러나 식민지의 까막소는 쥐들 속의 쥐새끼처럼 범죄자만 간혀 있는 곳은 아니다. 애국자, 사상가들이 노한 사자같이 눈을 부릅뜨며 있는 곳, 부당한 침해에 방어하려다 무고하게 투옥된 양들도 있으며 재판소의 서기는 억울하다는 말이 왜말로 번역이 안 되어 고심한다든가. (11:177)

돕는다. 이 일로 그는 '까막소' 신세를 지는데, 통영에서 어구점을 하는 조남현은 몽치를 고용하여 중책을 맡긴 '여선주'와 막역한 사이로서, 여선주와 함께 몽치의 석방을 돕는다.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에 대항하기 위해 과거 최참판가를 위해한 죄업으로 묶인 김평산 가문의 후손과 조준구 가문의 후손은 다시 “운명적” —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 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뜻을 합하게 된 것이다.<sup>44)</sup>

마지막으로 김환에 대해 살펴보자. 김환은 “인생 초반에서 가장 비극적인 상실을 목도하면서 살아남은 처지”의 인물로서, 특별히 그가 ‘별당아씨’를 잃은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대치(代置)가 불가능하였기에 그토록 철저하게 잃은 것”(11:40)으로 정리된다. 별당아씨 사후, 김환의 삶은 ‘자취없는 허무’의 연속인 것으로 묘사되는 한편, “존재의 신비를 사랑한” 인물로 그려질 뿐, 윤씨부인-별당아씨로 이어지는 관계의 사슬에서 죄의식이 특별히 부각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의 첫 번째 만주행에서 생모 윤씨부인을 상대로 외치는 독백은 그의 독립운동이 자신의 존재의 근원에서 비롯하는 죄의식을 씻기 위한 행위임을 암시한다. 김환은 자신의 만주행에 대해서, 한편으로 “양반의 법도”를 저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어머님! 저는 한번 짚어보려고 만주 땅에 왔습니다! 짚어보려고 무거운 쇠철갑을 벗어보려구요!”(6:329)라고 절규하는데, 여기에서 ‘쇠철갑’이란 그의 존재 자체와 함께 하는 ‘상징적 빛’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동학잔존세력의 우두머리로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의 삶은 이와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환은 그를 적대시하는 지삼만의 밀고로 일경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는 동학잔존세력의 존재를 일본 통치자들에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스스로 생을

44) 이에 대해 『토지』는 “조부들 죄의 핏자국을 닦게 하기” 위한 “우연”(14:294)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박경리의 죄의식 관련 문제의식은 다소 운명론적인 것으로 경사되는 측면을 보인다. / \* 최치수 살해자로서 처형당한 김평산의 아들 김두수는 교사자로서 살아남아 이득을 챙긴 조준구에 대해 적개심을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식민지 법에 대항하여 뜻을 모음으로써 김환복 일가와 조병수 일가는 화해하게 된 것이다.

마감함으로써,<sup>45)</sup> 자신의 행적을 영원한 미결의 사건으로 종결짓는다. 여기에서 김환의 자살은 대의를 위한 ‘희생의 논리’<sup>46)</sup>를 따르는 것으로서, 앞의 ‘창’, 등에서 나타난 자살과는 구별된다. 김환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허무’에서 놓여나지 못하지만, ‘죄업’과 함께 하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식민지 법의 지배를 받는 희생의 제단에 내어 놓음으로써 대의의 실현을 기도한다.

『토지』는 박경리의 초기작에서부터 드러나는 죄의식 관련 작가의식의 긴 도정에 마침표를 찍는 작품이다. 『토지』에 이르러 죄는 상대화되며, 일본 제국주의라는 보다 큰 악에 대항하는<sup>47)</sup> 민초들의 삶을 통해 죄와 속죄의 윤리가 ‘폐쇄적’ 순환의 고리 —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혹은 죄업과 그로 인한 죄의식의 단선적 관계의 틀 — 를 벗어나 새로운 지평에서 다각적으로 ‘상징적 빛’을 청산하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활로를 마련한 작품이라 하겠다.

45) [본문 인용] 말할 입은 석포의 죽음으로 닫혀버렸다. 눈치 채지 않게 금식함으로써 서서히 죽어가든, 아니면 혀를 물고 죽든 이제는 홀가분하게 된 것이다. 아주 홀가분하게. 뒷일을 위해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것이 적절할 테지만, 사세 여하에 따라서 자살도 수단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죄상(罪狀)을 내놓는 기결(既決)로 가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오로지 미결(未決), 영원한 미결, 무혐의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있을 뿐인 것이다. (8:370)

46) 칸트는, 자살을 희생의 논리를 따르는 자살과 아무런 목적에도 소용이 없는 대중적 자살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김환의 자살은 첫번째에 해당한다. Zupančič(2004: 134-135)

47) [본문 인용] 총칼과 교지(狡智)로써 우리 속에 가두어진 조선민족, 성질 사나운 놈 있으면 잡아먹고 지혜로운 놈 있으면 잡아먹고 먹음직스러우면 잡아먹고 허약한 놈 잡아먹고 나머지는 부러먹으면서 필요할 때 조금씩, 유사시에는 비상용이고, 분명 볼모는 아니다. 일본이 강탈한 강산에 노닐던 짐승들이다. 그들 재산목록에 들어 있는 것이다. 어찌하여 이같이 하늘과 땅 사이에 법이 없는가. 그러나 법을 바라는 자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는 죄인이 되어 가둠을 당하며 모든 것, 생명까지 박탈당해야 한다. 이 무법의 벌판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걷고 있는 걸까. (13:49)

## 5. 결론

본고는 박경리 관련 논의가 『토지』 혹은 특정 시기(작품)에 편중되는 경향을 극복하고 박경리 문학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시론이다. 『토지』의 집필시기와 겹치는 시기에 발표된 『죄인들의 숙제』(1969), 『창』(1970), 『단층』(1974) 등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죄 문제에 대한 박경리의 집중적인 탐색이 엿보인다. 『김약국의 딸들』(1962), 『파시』(1964), 『시장과 전장』(1964) 등에 대한 개별 작품론이 상당수 발견되는 것과 달리, 위 장편들은 아직 논자들의 주목을 받지 않고 있다. 주지하듯이, 박경리는 1955년 「계산」으로 등단한 이래 『토지』(1969-1994) 집필이 끝날 때까지 오랜 창작기간 동안 다수의 단·중·장편을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 罪와 관련된 박경리의 문제의식이 최초로 드러난 작품은 《중앙여교 학보》에 발표된 「새벽의 합창」(1959)이며, 그 후 죄의식 문제는 『노을진 들녘』(1961-1962), 『가을에 온 여인』(1962-1963) 등의 장편 및 「타인들」(1965-1966), 「환상의 시기」(1966), 「밀고자」(1970) 등의 중·단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탐색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토지』 선행 작품들에 대한 분석을 거쳐 『토지』 다시읽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토지』와 창작시기가 겹치는 작품들뿐만 아니라, 초기작에서부터 시작된 죄 문제에 대한 박경리의 작가적 탐색이 『토지』에까지 이어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죄 문제가 박경리의 대표작 『토지』에서 특히 한·생명·운명 등 박경리 문학을 대표하는 핵심적 개념들에 비해 텍스트의 표층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발화들을 통해 드러난 작가의식의 구현임을 알 수 있었다.

본고 논의는 「환상의 시기」, 「밀고자」, 「인간」, 「노을진 들녘」, 「창」, 「단층」 및 『토지』를 대상으로 이러한 작품들에 드러난 법에 대한 인식을 살피는 것에서 시작한다. 박경리의 罪에 대한 문제의식은 법과의 관련선상에서 탐색된다. 상기 작품들은 법이 좋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혹은 법이 罪를 규정지을 수 없다는 '순수형식'으로서의 법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 보인다. 결과적으로 박경리 문학에서 죄 문제는 죄의식의 문제로 논의범위가 확장된다. 죄의식이 나타

나는 구체적 양상으로 법의 집행과 죄의식이 분리되는 경우, 법의 집행에 대해 죄의식 부재하는 경우가 있다. 박경리는 이러한 죄의식의 근원으로서 인간의 원초적 본능, 즉 대상·목적 등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욕망의 추상성을 『노을진 들녘』 등의 작품을 통해 제시한다.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죄의식은 타자-인물과의 관계 자체가 그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와 물질욕망이 우선하여 작용하는 경우로 유형화할 수 있다. 후자는 다시 타자-인물과 관계의 문제로 치환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체적으로 위법을 행한 주체는 죄의식을 갖지 않으며, 법의 처벌을 받더라도 그 죄의 대가는 '상징적 빛'으로서 후손에게 승계된다. 이러한 죄의식의 두 가지 유형은 모두 박경리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가족'의 문제와 결부된다.

박경리는 이와 같이 법 집행/위법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죄의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이의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창』과 『단층』은 각각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전개된다. 두 작품 모두 피해자가 생존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창』은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범죄에 대해 죄의식을 갖는 인물과 법의 집행을 받고 피해한 삶을 살아가되 죄의식을 갖지 않는 인물의 대비를 통해, 법의 집행과 죄의식의 분리를 명백히 드러낸다. 또한 죽은 자에 대한 죄의식일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폐쇄적 구도 내에서 죄-속죄의 순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때 죄의식의 주체는 스스로를 처벌하기 위해 위법을 자행하는 등 자학적인 삶의 방식을 취한다. 『단층』은 한 인물의 간접적 살해자들이 그에 대해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한 작품으로, 남편의 배신을 확인하고 과거의 상처를 환기하는 한윤희가 모친의 간접적 살해자들의 단죄를 결행하나, 죄에 대한 인식 내지는 죄의식이 부재한 인물에 대해서는 단죄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역시 죽은 자에 대해서는 죄-속죄의 순환우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절망한다. 두 작품에서는 '고백' 내지 죄의 '진술'을 통해 죄-속죄의 순환이 불가능한 상황을 탈피코자 한다. 『창』에서는 사랑하는 여성에게 마음속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나, 이것이 죄의식 해소를 위한 본질적 치유책일 수 없음을 드러내며, 『단층』에서는 거짓 고백을 받아 내나 그것의 무의미

함을 깨닫는다. 두 작품은 주인공들의 죽음으로 결론을 맺는데, 박경리의 죄의식에 대한 문제의식은 『토지』로 이어진다.

『토지』는 죄의식과 관련하여 거시적·다층적·상대적 접근을 한 작품으로 선행 작품이 취한 피해자와 가해자간 폐쇄적 구조를 탈피한다. 봉건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가 충돌하는 구한말에서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받는 시대를 배경으로 죄의 문제가 상대화되며, 잔여의 죄는 상징적 빛으로서 이전되어 세대의 연속을 통해 청산된다. 이때 죄-속죄의 순환윤리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폐쇄적 구조를 탈피하여 제3의 대상으로 욕망을 투여함으로써 실현된다. 법에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의식이 부재할 경우, 그러한 죄에 대한 속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죄를 상징적 빛으로 승계받은 후세대 인물은 자학의 방식을 탈피하여 예술 등 제3의 대상 [일]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혹은 법의 처벌을 받았을지라도, 죄를 인정하지 않은 인물의 후손 역시 그 잔여의 죄를 상징적 빛으로 이전받아 조국독립 [대의]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보다 큰 민족적 차원의 악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죄의식을 해소한다. 한편 시대의 변혁을 추구하는 가운데 가치의 충돌로 갈등하면서 존재의 본질 차원 [사생아]에서 죄의식을 승계받은 인물의 상대화된 죄(의식) 역시 일본제국주의라는 보다 큰 악에 대항하는 방식을 통해 탕감된다. 『토지』에서 선대의 죄업을 '상징적 빛'으로 물려받은 인물들이 이를 청산하는 또 다른 양상으로, 식민지 시대 법의 처벌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상징적 빛이 된 계정의 여죄를 청산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이는 '순수형식'으로서의 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서사 전개라 할 수 있다. 이상, 선대로부터 상징적 빛을 이어받은 『토지』의 인물들이 이를 탕감해 나가는 양상을 통해, 『토지』가 가해자와 피해자간 혹은 죄의식의 주체와 그 원인간의 폐쇄적 순환 구조를 탈피하여 죄의식의 경제를 실현한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박경리, 「언덕 위의 합창」, 지식산업사, 1990. (「새벽의 합창」, 《중앙여고 학보》, 1959)
- , 「노을진 들녘」, 지식산업사, 1979. (《경향신문》, 1961. 10~1962. 6.)
- , 「타인들」, 『他人들·哀歌』, 지식산업사, 1980. (《주부생활》, 1965. 4~1966. 3)
- , 「환상의 시기」, 지식산업사, 1980. (《한국문학》, 1966. 3~12)
- , 「密告者」, 《세대》, 1970. 6.
- , 「창」, 지식산업사, 1980. (《조선일보》, 1970)
- , 「단층」, 지식산업사, 1986. (《동아일보》, 1974. 2. 18 ~ 12. 31).
- , 「토지1~16」, 솔, 1996.
- , 「Q씨에게」, 지식산업사, 1981.

### 2. 연구자료

- 구재진(1998), 「1960년대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생활'의 의미」, 『1960년대 문학 연구』, 깊은샘, 297-319.
- 권영민(2002),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 김상환(2004), 「해체론의 선물 — 데리다와 교환의 영점(零點)」, 『현대비평과 이론』, 101-118.
- 김은경(2004), 「갈등구조를 통한 박경리 『토지』의 담론특성/미학 고찰」, 『비교문학』 33, 235-273.
- 서동욱(2000), 『차이와 타자』, 문학과지성사.
- 송호근(1994), 「삶에의 연민, 恨의 美學」, 『작가세계』 49.

- 이덕화(2000), 『박경리와 최명희 — 두 여성적 글쓰기』, 태학사.
- 이상진(1999), 『토지 연구』, 월인.
- 정현기 편(1994), 『恨과 삶』, 솔.
- 장미영(2002), 「박경리 소설 연구 —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 조남현(1996), 『박경리』, 조남현 편, 서강대학교출판부.
- 최유찬(1996), 『『토지』를 읽는다』, 솔.
- , (2001), 「『카라마조프의 형제』와 『토지』에 나타난 수난의 문제」, 『문예연구』 28, 27-57.
- 한국문학연구회 편(1996), 『『토지』와 박경리 문학』, 솔.
- Chongko, Choi(2005), *Law and Justice in Korea: south and north*,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Deleuze, G.(1996), 「유머, 아이러니, 법」, 『매저키즘』, 이강훈 역, 인간사랑, 99-100.
- (2000a), 「칸트철학을 요약해 줄 수 있는 네 개의 시적 표현에 대하여」, 『비평과 진단』, 김현수 역, 인간사랑, 2000, 57-70.
- Deleuze, G. & F. Guattari(1997), 『소수 집단의 문학을 위하여-카프카론』, 조한경 역, 문학과지성사.
- (2000b), 『양띠 오이디푸스』, 최명관 역, 민음사.
- Derrida, J.(1992), *Given Time: I . Counterfeit Money*, The Univ. of Chicago Press.
- Freud, S.(1997), 「마조히즘의 경제적 문제」, 『쾌락원칙을 넘어서』, 박찬부 역, 열린책들, 170-182.
- (2004), 『문명 속의 불만』, 김석희 역, 열린책들.
- Holland, Eugene. W.(1999), *Deleuze and Guattari's Anti-Oedipus*, Routledge.
- Kant, E.(2004), 『실천이성비판』, 백종현 역, 이카넷.
- Martyn, D.(1999), “Sade’s Ethical Economies”, *The New Economic Criticism-Studies at the intersection of literature and economics*, Routledge, 258-276.

——(2003), *Sublime Failures - The Ethics of Kant and Sade*, Wayne State Univ. Press.

Ricoeur, P.(1995), 『악의 상징』, 양명수 역, 문학과 지성사.

Zupančič, A.(2004), 『실재의 윤리-칸트와 라캉』, 이성민 역, 도서출판b.

원고 접수일: 2006년 3월 10일

게재 결정일: 2006년 5월 15일

**ABSTRACT**

---

A Study on the Economy of 'Consciousness of Guilt' in  
Kyung-ri Park's Novels.

Kim, Eun-Kyung

Kyung-Ri Park is well known as the writer of *The Land*(土地), the historical novel. *The Land* is written from 1969 to 1994, and Kyung-Ri Park has been writing from 1955. So, before writing *The Land*, she had written many works. This essay aims to explore Kyung-Ri Park's novel thoroughly. In order to realize this aim, this essay study the pre-works of *The Land*, and then based on the result, re-read *The Land*. Through reading Kyung-Ri Park's novel over all, it is found that Park's most prominent concern is the 'Consciousness of Guilt'. This essay focus on this problem ; How the 'Consciousness of Guilt' is generating and resolving in Park's novel is the main concern of this thesis. This is similar to the principle of economy, so this essay use the term 'economy' in relation to the 'Consciousness of Guilt' as 'the economy of *Jouissance*'.

From the Park's early novels, crime [guilt] and punishment are appeared as the main motif. Kyung-Ri Park is consistently exploring the issue. Accordingly, the problem of Law is also the main idea in her novels. This essay is beginning to discuss the thoughts about the Law appeared in her novels. It is analyzed into two cases. One is the case that there isn't connection between the administration

of Law and the Consciousness of Guilt. The other is that a person who is guilt doesn't awake the Consciousness of Guilt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on of Law. These aspects found in Park's novels are essentially caused from the idea about Law. As reading Park's novels, we can find Park's ideas about the Law that don't guarantee the goodness. This idea is related with the Kant's thought of the Law as 'Pure Form'. According to this idea, the realization of goodness isn't guaranteed by the Law, that is, Law don't take it's material from the transcendental goodness. Park's novels represent these idea through events and character's dialogues. The former is well represented in the novels as *The Days of Fantasy*, *A Window*, *the Land* (Section 5), and the latter is appeared in the novels as *A Human Being*, *A Betrayer*, *A Dislocation*, *The Land*. Based on these aspects found in the Park's novels, this essay draw a conclusion on the Consciousness of Guilt patterns and origin. In Park's novels, we can find two types of the Consciousness of Guilt. One is related to the first case above mentioned; the Consciousness of Guilt originated from the relation with character [person] itself, especially family members or lovers. The other is related to the second case above mentioned; Characters don't having any Consciousness of Guilt on the crime [guilt] is greedy for worldly riches or power. Even though they are punished for their misconduct, they don't awake any guilt. It is problematic that Park does not stop to punish these characters by law. She reveals the idea if one person punished by law on his misdeed does not have any Consciousness of Guilt, then his guilt are not paid off. The Guilt is succeeded to his offsprings as a 'Symbolic Debt'; So, this pattern is also related with family. Park does also reveals in her novels the origin of these two patterns of guilt. It's origin is not simply Superego such as Freud asserts, but also 'abstract subjective essence' of human being's desire insisted by Deleuze. Park's quest for the guilt begins to explore such nature of human being's desire, no longer in relation to objects, aims, or even sources. Such a essence of desire showed in

*An open Field lit up with the glow.* These are discussed in second chapter of this essay.

The discussion of third chapter is about Park's quest for solution to the problem; How can one character(person) having the Consciousness of Guilt settles it. In discussing this problem in third chapter, the key point is whether victim-character survives or not. It is problematic situation that the victim-character does not exist, because the wrongdoer can't compensate for his misconduct. *A Window*, *Others*, and *A Dislocation* are works to discuss with respect to this problem. When a person [harmer-character] has guilt to a victim-character who does not exist, he suffer from the fact he can't compensate for his wrongdoing to his victim. *A Window* and *Others* are representing this situation. Protagonist of these works takes the way to punish himself, which is appeared Masochism according to Freud, Deleuze, Masochism is a way to decrease guilt or to increase sexual pleasure. In Park's works, Masochism is takes to decrease the Consciousness of Guilt in impossible situation to circulate guilt and redemption. It's possible to say Masochism is negative way to settle the Consciousness of Guilt. In Park's novels, we can find more positive way to settle down guilt. It is to confess his crime [guilt] to one who loves and to wish making a home. Confession is to provide the listener with oneself who confess. If the listener forgive the confessor, then the circulation of crime and punishment could be finished. But Park's quest for the problem of guilt does not take this more or less simple way. Park raises a question in the *Dislocation*, about statement of crime written by a person [wrongdoer-character] who does not have any consciousness of guilt. Park's quest for resolving the guilt is succeeded in *The Land*.

In forth chapter of this essay, argument on the Consciousness of Guilt is focused on *The Land*, which is Park's last and monumental work. The argument of this essay does not isolated *The Land* from her another works. As we have

seen, the argument on *The Land* is closely related with Park's early works focusing on the guilt. *The Land* reveals several distinguishing points on the issue of this essay; First, *The Land* deals with the issue of guilt through a shift in generations. Second, in *The Land*, approaches on the issue of crime [guilt] relatively and take a broad view. It is caused from the fact that the background of *The Land* is from the last stage of Yi Dynasty to Japanese Imperialism. Third, the circular and closed structure of crime [guilt] and punishment [compensation] expands its boundary by taking 'third object' to settle conflict in *The Land*. The salient feature of *The Land* is, as we know, its scope joins the story of five generations. So, the issue of personal guilt is expanded into the problem of family as a 'Symbolic Debt'; By offsprings redemption paid off remained guilt of ancestors. As above mentioned, in *The Land*, the guilt is not stipulated absolutely caused by conflict between old-fashioned value and modernized value. Relatively prescribed guilt is paid off through the succession of generations by a method distinguished from early novels. Characters implicated in the issue of guilt expand their horizons into public dimension or art. They invest their desire in 'Third Object' to decrease their Consciousness of Guilt. For example, such characters devote himself to regain sovereignty from Japanese Imperialism, so that they recover their credit from dishonor as descendants of the criminal; or to devote himself to make works of art. This essay also observes the relation of law and crime [guilt] showed in *The Land*. The offsprings of criminal in *The Land* restore their honor by punishment of Law of Japanese. In this ironical situation, we can also Park's thought on the Law as pure form. Transgression of Law not only increases the Consciousness of Guilt, but also decreases it. This essay is focused on the issue of Consciousness of guilt showed in Park's novel. It is one step to complete a thesis on the literature of Kyung-Ri Park.